

Vol. 20 No. 958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May 24 2024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http://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mailto: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http://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 보스톤 박사학위 저소득자들 불안한 삶 "일자리가 없다"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수많은 박사학위자 배출, 미래 불투명 정 교수직은 거의 희박, 학위 취득자의 20% 이하만 정규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내 최고 고학력자들이 거주하는 매사추세츠에서 수많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정교수직 등 정규직 일자리를 내다보며 저소득 일자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스톤 글로브가 보도했다.

대학원에서 4에서 7년을 공부한 후 취득한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으며, 대부분 언제든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비상근직 교수(adjunct professor, 시간강사)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학 정교수로 가는 길은 더욱 험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취업을 돕는회사 비온드 더 프론퍼서리에이트(Beyond the Profes-

soriate)의 설립자인 매런 우드씨는 정규직 교수 자리는 거의 찾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07년에서 2022년까지 철학 전공의 교수직 채용은 50%가량 줄었으며 영어 전공의 경우 60%가 줄었다.

과거 밀레니얼들 입학 때에는 밀려드는 학생들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들은 급격히 교수를 증원했지만, 대학 등록자들이 급감하며 채용을 동결하는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하버드와 보스톤칼리지에서 이용하고 있는 회사의 CEO 매런 우드는 "채용을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 라고 지적했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박사인력들은 정규 교수직을 찾는 동안 ▶▶7면으로 계속



저소득 대학교수, 어울리지 않은 단어조합이 보스톤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다. 많은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비상근 교수직으로 학교를 오가며 일하지만 대부분은 저소득이며 제대로 된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특별한 보상. 전문적인 권유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아웃사이드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권유  
\* 조지아 어블린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mailto: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mailto: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영화로 1세대와 2세대 간극 좁힌 시민협회 정치인턴 만찬

## 이민가족의 애환 그린 <리커스토어 드림>으로 소통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민가족의 애환을 그린 다큐 영화 '리커스토어 드림스' 상영회, 네트워크 시간으로 구성된 시민협회 정치인턴 만찬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5월 17일 저녁 보스톤 다운타운 에머슨 페러마운트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정치인턴 만찬은 정치인 연사들과 한인 1세대들이 참가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보스톤재단의 아시안사업제진흥 카운슬(ABEC)의 QJ 시디렉터, 채널 4 앵커 티파니 쉐, 채널 5 리포터 다내 부치, 인플루언서 찰스틱 퍼피, MFA 팀, 그리고 에머슨 칼리지 및 서퍽 대학 학생들 등 참여 폭이 대폭 확대됐다. 한인사회에서는 김병국 예술인협회장, 허훈 옥타경제인협회장, 니키박 한인회 수석부회장, 김성군 시민협회 명예이사장, 양미아 이사장, 김성혁 전 평통회장 등이 참여했다.

170석의 페러마운트센터 4층 브라이트 패밀리 스크린 룸에서 진행된 이번 만찬의 티켓은 모두 매진됐으며 상당수가 입석으로 영화를 감상했다. 상영전 나누준 김밥과 팝콘, 음료수가 담긴 백을 배포해 영화를 보면서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2023년 개봉해 각종 영화제와 언론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한인 2세 엄소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리커스토어 드림스'(Liquor Store Dreams)는 배경은 다르지만 '이민자인 우리 이야기'라는 점에서 한인들 및 참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리커스토어 드림스'는 흑인 거주 지역인 사우스센트럴 로스앤젤레스(LA)에서 리커스토어로 이민자의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한인 가족의 애환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엄소윤 감독과 가족이 직접 출연한 자전적 이야기다. 30여년간 리커스토어를 운영한 아버지 엄해섭씨,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어서 또



5월 17일 다운타운 페러마운트센터 4층 브라이트 패밀리 스크린룸에서 열린 시민협회 정치인턴 영화 만찬에서 영화 후 감독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좌로부터 사회자 수잔 친센, 린다 챔피언 시민협회장, QJ 시 ABEC 디렉터. 화면에는 온라인으로 참가한 엄소윤 감독의 모습

다른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친구 대니 등의 이야기를 영화에 담았다. 4·29 LA폭동이 발생했던 곳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몸소 겪은 아버지와 BLM(흑인의 목숨도 소중) 운동을 지지하는 엄 감독 간의 갈등은 한인 1세대들과 2세대들에게 놓인 문화적인 갈등을 대변하는 듯 했다.

영화 속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야기하지 말라"는 엄해섭씨의 말은 공감으로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지만 한번 경험한 인식이 편견으로 함몰됨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었다. 다른 세대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지만 가족의 사랑 등 다른 이야기로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을 조명하기도 했다. 영화를 좋아하는 딸과 함께 참석

한 한 인은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며 좋았다"고 말했고, 다른 한인은 참석자들도 영화를 보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영화상영이 끝난 후 수잔 친센의 사회로 QJ 시 디렉터, 린다 챔피언 시민협회장 그리고 엄소윤 감독이 영상으로 참가해 감독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엄감독은 이자리에서 총 3년에 걸친 >>3면으로 계속

**서울설렁탕**  
SPECIAL 1500CHICKEN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k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유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유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진방법,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출발 전 상담·예약·검진일별·비료공급을 보orsch 및인보시 드려드립니다\*

**☑ 유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1. 이학적검사(신체계측, 체중도, 시력, 안압, 혈압)
2. 흉격검사(순환성심장검사)
3. 혈액검사(총콜레스테롤검사 70여가지)
4. 암표지자검사
5. 심폐기능검사(호흡기-RAY, EKG, 노폐물배출량)
6. 오진사
7. 목지방검사
8. 부인과검사(자궁경부파, 유방초음파)
9. 소변기능검사(수면 유도제)
10. 핵부초음파(영상)간장, 위장, 췌장(가별)
11. 분진 및 건조의 상담

**유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후 4시 ~ 49만원 ~  
·가별 상담·(1)비료공급·(2)신체계측·(3)혈액·(4)안압·(5)시력·(6)안압·(7)혈압·(8)혈당·(9)콜레스테롤·(10)혈당·(11)혈당·(12)혈당·(13)혈당·(14)혈당·(15)혈당·(16)혈당·(17)혈당·(18)혈당·(19)혈당·(20)혈당·(21)혈당·(22)혈당·(23)혈당·(24)혈당·(25)혈당·(26)혈당·(27)혈당·(28)혈당·(29)혈당·(30)혈당·(31)혈당·(32)혈당·(33)혈당·(34)혈당·(35)혈당·(36)혈당·(37)혈당·(38)혈당·(39)혈당·(40)혈당·(41)혈당·(42)혈당·(43)혈당·(44)혈당·(45)혈당·(46)혈당·(47)혈당·(48)혈당·(49)혈당·(50)혈당·(51)혈당·(52)혈당·(53)혈당·(54)혈당·(55)혈당·(56)혈당·(57)혈당·(58)혈당·(59)혈당·(60)혈당·(61)혈당·(62)혈당·(63)혈당·(64)혈당·(65)혈당·(66)혈당·(67)혈당·(68)혈당·(69)혈당·(70)혈당·(71)혈당·(72)혈당·(73)혈당·(74)혈당·(75)혈당·(76)혈당·(77)혈당·(78)혈당·(79)혈당·(80)혈당·(81)혈당·(82)혈당·(83)혈당·(84)혈당·(85)혈당·(86)혈당·(87)혈당·(88)혈당·(89)혈당·(90)혈당·(91)혈당·(92)혈당·(93)혈당·(94)혈당·(95)혈당·(96)혈당·(97)혈당·(98)혈당·(99)혈당·(100)혈당·(101)혈당·(102)혈당·(103)혈당·(104)혈당·(105)혈당·(106)혈당·(107)혈당·(108)혈당·(109)혈당·(110)혈당·(111)혈당·(112)혈당·(113)혈당·(114)혈당·(115)혈당·(116)혈당·(117)혈당·(118)혈당·(119)혈당·(120)혈당·(121)혈당·(122)혈당·(123)혈당·(124)혈당·(125)혈당·(126)혈당·(127)혈당·(128)혈당·(129)혈당·(130)혈당·(131)혈당·(132)혈당·(133)혈당·(134)혈당·(135)혈당·(136)혈당·(137)혈당·(138)혈당·(139)혈당·(140)혈당·(141)혈당·(142)혈당·(143)혈당·(144)혈당·(145)혈당·(146)혈당·(147)혈당·(148)혈당·(149)혈당·(150)혈당·(151)혈당·(152)혈당·(153)혈당·(154)혈당·(155)혈당·(156)혈당·(157)혈당·(158)혈당·(159)혈당·(160)혈당·(161)혈당·(162)혈당·(163)혈당·(164)혈당·(165)혈당·(166)혈당·(167)혈당·(168)혈당·(169)혈당·(170)혈당·(171)혈당·(172)혈당·(173)혈당·(174)혈당·(175)혈당·(176)혈당·(177)혈당·(178)혈당·(179)혈당·(180)혈당·(181)혈당·(182)혈당·(183)혈당·(184)혈당·(185)혈당·(186)혈당·(187)혈당·(188)혈당·(189)혈당·(190)혈당·(191)혈당·(192)혈당·(193)혈당·(194)혈당·(195)혈당·(196)혈당·(197)혈당·(198)혈당·(199)혈당·(200)혈당·(201)혈당·(202)혈당·(203)혈당·(204)혈당·(205)혈당·(206)혈당·(207)혈당·(208)혈당·(209)혈당·(210)혈당·(211)혈당·(212)혈당·(213)혈당·(214)혈당·(215)혈당·(216)혈당·(217)혈당·(218)혈당·(219)혈당·(220)혈당·(221)혈당·(222)혈당·(223)혈당·(224)혈당·(225)혈당·(226)혈당·(227)혈당·(228)혈당·(229)혈당·(230)혈당·(231)혈당·(232)혈당·(233)혈당·(234)혈당·(235)혈당·(236)혈당·(237)혈당·(238)혈당·(239)혈당·(240)혈당·(241)혈당·(242)혈당·(243)혈당·(244)혈당·(245)혈당·(246)혈당·(247)혈당·(248)혈당·(249)혈당·(250)혈당·(251)혈당·(252)혈당·(253)혈당·(254)혈당·(255)혈당·(256)혈당·(257)혈당·(258)혈당·(259)혈당·(260)혈당·(261)혈당·(262)혈당·(263)혈당·(264)혈당·(265)혈당·(266)혈당·(267)혈당·(268)혈당·(269)혈당·(270)혈당·(271)혈당·(272)혈당·(273)혈당·(274)혈당·(275)혈당·(276)혈당·(277)혈당·(278)혈당·(279)혈당·(280)혈당·(281)혈당·(282)혈당·(283)혈당·(284)혈당·(285)혈당·(286)혈당·(287)혈당·(288)혈당·(289)혈당·(290)혈당·(291)혈당·(292)혈당·(293)혈당·(294)혈당·(295)혈당·(296)혈당·(297)혈당·(298)혈당·(299)혈당·(300)혈당·(301)혈당·(302)혈당·(303)혈당·(304)혈당·(305)혈당·(306)혈당·(307)혈당·(308)혈당·(309)혈당·(310)혈당·(311)혈당·(312)혈당·(313)혈당·(314)혈당·(315)혈당·(316)혈당·(317)혈당·(318)혈당·(319)혈당·(320)혈당·(321)혈당·(322)혈당·(323)혈당·(324)혈당·(325)혈당·(326)혈당·(327)혈당·(328)혈당·(329)혈당·(330)혈당·(331)혈당·(332)혈당·(333)혈당·(334)혈당·(335)혈당·(336)혈당·(337)혈당·(338)혈당·(339)혈당·(340)혈당·(341)혈당·(342)혈당·(343)혈당·(344)혈당·(345)혈당·(346)혈당·(347)혈당·(348)혈당·(349)혈당·(350)혈당·(351)혈당·(352)혈당·(353)혈당·(354)혈당·(355)혈당·(356)혈당·(357)혈당·(358)혈당·(359)혈당·(360)혈당·(361)혈당·(362)혈당·(363)혈당·(364)혈당·(365)혈당·(366)혈당·(367)혈당·(368)혈당·(369)혈당·(370)혈당·(371)혈당·(372)혈당·(373)혈당·(374)혈당·(375)혈당·(376)혈당·(377)혈당·(378)혈당·(379)혈당·(380)혈당·(381)혈당·(382)혈당·(383)혈당·(384)혈당·(385)혈당·(386)혈당·(387)혈당·(388)혈당·(389)혈당·(390)혈당·(391)혈당·(392)혈당·(393)혈당·(394)혈당·(395)혈당·(396)혈당·(397)혈당·(398)혈당·(399)혈당·(400)혈당·(401)혈당·(402)혈당·(403)혈당·(404)혈당·(405)혈당·(406)혈당·(407)혈당·(408)혈당·(409)혈당·(410)혈당·(411)혈당·(412)혈당·(413)혈당·(414)혈당·(415)혈당·(416)혈당·(417)혈당·(418)혈당·(419)혈당·(420)혈당·(421)혈당·(422)혈당·(423)혈당·(424)혈당·(425)혈당·(426)혈당·(427)혈당·(428)혈당·(429)혈당·(430)혈당·(431)혈당·(432)혈당·(433)혈당·(434)혈당·(435)혈당·(436)혈당·(437)혈당·(438)혈당·(439)혈당·(440)혈당·(441)혈당·(442)혈당·(443)혈당·(444)혈당·(445)혈당·(446)혈당·(447)혈당·(448)혈당·(449)혈당·(450)혈당·(451)혈당·(452)혈당·(453)혈당·(454)혈당·(455)혈당·(456)혈당·(457)혈당·(458)혈당·(459)혈당·(460)혈당·(461)혈당·(462)혈당·(463)혈당·(464)혈당·(465)혈당·(466)혈당·(467)혈당·(468)혈당·(469)혈당·(470)혈당·(471)혈당·(472)혈당·(473)혈당·(474)혈당·(475)혈당·(476)혈당·(477)혈당·(478)혈당·(479)혈당·(480)혈당·(481)혈당·(482)혈당·(483)혈당·(484)혈당·(485)혈당·(486)혈당·(487)혈당·(488)혈당·(489)혈당·(490)혈당·(491)혈당·(492)혈당·(493)혈당·(494)혈당·(495)혈당·(496)혈당·(497)혈당·(498)혈당·(499)혈당·(500)혈당·(501)혈당·(502)혈당·(503)혈당·(504)혈당·(505)혈당·(506)혈당·(507)혈당·(508)혈당·(509)혈당·(510)혈당·(511)혈당·(512)혈당·(513)혈당·(514)혈당·(515)혈당·(516)혈당·(517)혈당·(518)혈당·(519)혈당·(520)혈당·(521)혈당·(522)혈당·(523)혈당·(524)혈당·(525)혈당·(526)혈당·(527)혈당·(528)혈당·(529)혈당·(530)혈당·(531)혈당·(532)혈당·(533)혈당·(534)혈당·(535)혈당·(536)혈당·(537)혈당·(538)혈당·(539)혈당·(540)혈당·(541)혈당·(542)혈당·(543)혈당·(544)혈당·(545)혈당·(546)혈당·(547)혈당·(548)혈당·(549)혈당·(550)혈당·(551)혈당·(552)혈당·(553)혈당·(554)혈당·(555)혈당·(556)혈당·(557)혈당·(558)혈당·(559)혈당·(560)혈당·(561)혈당·(562)혈당·(563)혈당·(564)혈당·(565)혈당·(566)혈당·(567)혈당·(568)혈당·(569)혈당·(570)혈당·(571)혈당·(572)혈당·(573)혈당·(574)혈당·(575)혈당·(576)혈당·(577)혈당·(578)혈당·(579)혈당·(580)혈당·(581)혈당·(582)혈당·(583)혈당·(584)혈당·(585)혈당·(586)혈당·(587)혈당·(588)혈당·(589)혈당·(590)혈당·(591)혈당·(592)혈당·(593)혈당·(594)혈당·(595)혈당·(596)혈당·(597)혈당·(598)혈당·(599)혈당·(600)혈당·(601)혈당·(602)혈당·(603)혈당·(604)혈당·(605)혈당·(606)혈당·(607)혈당·(608)혈당·(609)혈당·(610)혈당·(611)혈당·(612)혈당·(613)혈당·(614)혈당·(615)혈당·(616)혈당·(617)혈당·(618)혈당·(619)혈당·(620)혈당·(621)혈당·(622)혈당·(623)혈당·(624)혈당·(625)혈당·(626)혈당·(627)혈당·(628)혈당·(629)혈당·(630)혈당·(631)혈당·(632)혈당·(633)혈당·(634)혈당·(635)혈당·(636)혈당·(637)혈당·(638)혈당·(639)혈당·(640)혈당·(641)혈당·(642)혈당·(643)혈당·(644)혈당·(645)혈당·(646)혈당·(647)혈당·(648)혈당·(649)혈당·(650)혈당·(651)혈당·(652)혈당·(653)혈당·(654)혈당·(655)혈당·(656)혈당·(657)혈당·(658)혈당·(659)혈당·(660)혈당·(661)혈당·(662)혈당·(663)혈당·(664)혈당·(665)혈당·(666)혈당·(667)혈당·(668)혈당·(669)혈당·(670)혈당·(671)혈당·(672)혈당·(673)혈당·(674)혈당·(675)혈당·(676)혈당·(677)혈당·(678)혈당·(679)혈당·(680)혈당·(681)혈당·(682)혈당·(683)혈당·(684)혈당·(685)혈당·(686)혈당·(687)혈당·(688)혈당·(689)혈당·(690)혈당·(691)혈당·(692)혈당·(693)혈당·(694)혈당·(695)혈당·(696)혈당·(697)혈당·(698)혈당·(699)혈당·(700)혈당·(701)혈당·(702)혈당·(703)혈당·(704)혈당·(705)혈당·(706)혈당·(707)혈당·(708)혈당·(709)혈당·(710)혈당·(711)혈당·(712)혈당·(713)혈당·(714)혈당·(715)혈당·(716)혈당·(717)혈당·(718)혈당·(719)혈당·(720)혈당·(721)혈당·(722)혈당·(723)혈당·(724)혈당·(725)혈당·(726)혈당·(727)혈당·(728)혈당·(729)혈당·(730)혈당·(731)혈당·(732)혈당·(733)혈당·(734)혈당·(735)혈당·(736)혈당·(737)혈당·(738)혈당·(739)혈당·(740)혈당·(741)혈당·(742)혈당·(743)혈당·(744)혈당·(745)혈당·(746)혈당·(747)혈당·(748)혈당·(749)혈당·(750)혈당·(751)혈당·(752)혈당·(753)혈당·(754)혈당·(755)혈당·(756)혈당·(757)혈당·(758)혈당·(759)혈당·(760)혈당·(761)혈당·(762)혈당·(763)혈당·(764)혈당·(765)혈당·(766)혈당·(767)혈당·(768)혈당·(769)혈당·(770)혈당·(771)혈당·(772)혈당·(773)혈당·(774)혈당·(775)혈당·(776)혈당·(777)혈당·(778)혈당·(779)혈당·(780)혈당·(781)혈당·(782)혈당·(783)혈당·(784)혈당·(785)혈당·(786)혈당·(787)혈당·(788)혈당·(789)혈당·(790)혈당·(791)혈당·(792)혈당·(793)혈당·(794)혈당·(795)혈당·(796)혈당·(797)혈당·(798)혈당·(799)혈당·(800)혈당·(801)혈당·(802)혈당·(803)혈당·(804)혈당·(805)혈당·(806)혈당·(807)혈당·(808)혈당·(809)혈당·(810)혈당·(811)혈당·(812)혈당·(813)혈당·(814)혈당·(815)혈당·(816)혈당·(817)혈당·(818)혈당·(819)혈당·(820)혈당·(821)혈당·(822)혈당·(823)혈당·(824)혈당·(825)혈당·(826)혈당·(827)혈당·(828)혈당·(829)혈당·(830)혈당·(831)혈당·(832)혈당·(833)혈당·(834)혈당·(835)혈당·(836)혈당·(837)혈당·(838)혈당·(839)혈당·(840)혈당·(841)혈당·(842)혈당·(843)혈당·(844)혈당·(845)혈당·(846)혈당·(847)혈당·(848)혈당·(849)혈당·(850)혈당·(851)혈당·(852)혈당·(853)혈당·(854)혈당·(855)혈당·(856)혈당·(857)혈당·(858)혈당·(859)혈당·(860)혈당·(861)혈당·(862)혈당·(863)혈당·(864)혈당·(865)혈당·(866)혈당·(867)혈당·(868)혈당·(869)혈당·(870)혈당·(871)혈당·(872)혈당·(873)혈당·(874)혈당·(875)혈당·(876)혈당·(877)혈당·(878)혈당·(879)혈당·(880)혈당·(881)혈당·(882)혈당·(883)혈당·(884)혈당·(885)혈당·(886)혈당·(887)혈당·(888)혈당·(889)혈당·(890)혈당·(891)혈당·(892)혈당·(893)혈당·(894)혈당·(895)혈당·(896)혈당·(897)혈당·(898)혈당·(899)혈당·(900)혈당·(901)혈당·(902)혈당·(903)혈당·(904)혈당·(905)혈당·(906)혈당·(907)혈당·(908)혈당·(909)혈당·(910)혈당·(911)혈당·(912)혈당·(913)혈당·(914)혈당·(915)혈당·(916)혈당·(917)혈당·(918)혈당·(919)혈당·(920)혈당·(921)혈당·(922)혈당·(923)혈당·(924)혈당·(925)혈당·(926)혈당·(927)혈당·(928)혈당·(929)혈당·(930)혈당·(931)혈당·(932)혈당·(933)혈당·(934)혈당·(935)혈당·(936)혈당·(937)혈당·(938)혈당·(939)혈당·(940)혈당·(941)혈당·(942)혈당·(943)혈당·(944)혈당·(945)혈당·(946)혈당·(947)혈당·(948)혈당·(949)혈당·(950)혈당·(951)혈당·(952)혈당·(953)혈당·(954)혈당·(955)혈당·(956)혈당·(957)혈당·(958)혈당·(959)혈당·(960)혈당·(961)혈당·(962)혈당·(963)혈당·(964)혈당·(965)혈당·(966)혈당·(967)혈당·(968)혈당·(969)혈당·(970)혈당·(971)혈당·(972)혈당·(973)혈당·(974)혈당·(975)혈당·(976)혈당·(977)혈당·(978)혈당·(979)혈당·(980)혈당·(981)혈당·(982)혈당·(983)혈당·(984)혈당·(985)혈당·(986)혈당·(987)혈당·(988)혈당·(989)혈당·(990)혈당·(991)혈당·(992)혈당·(993)혈당·(994)혈당·(995)혈당·(996)혈당·(997)혈당·(998)혈당·(999)혈당·(1000)혈당·(1001)혈당·(1002)혈당·(1003)혈당·(1004)혈당·(1005)혈당·(1006)혈당·(1007)혈당·(1008)혈당·(1009)혈당·(1010)혈당·(1011)혈당·(1012)혈당·(1013)혈당·(1014)혈당·(1015)혈당·(1016)혈당·(1017)혈당·(1018)혈당·(1019)혈당·(1020)혈당·(1021)혈당·(1022)혈당·(1023)혈당·(1024)혈당·(1025)혈당·(1026)혈당·(1027)혈당·(1028)혈당·(1029)혈당·(1030)혈당·(1031)혈당·(1032)혈당·(1033)혈당·(1034)혈당·(1035)혈당·(1036)혈당·(1037)혈당·(1038)혈당·(1039)혈당·(1040)혈당·(1041)혈당·(1042)혈당·(1043)혈당·(1044)혈당·(1045)혈당·(1046)혈당·(1047)혈당·(1048)혈당·(1049)혈당·(1050)혈당·(1051)혈당·(1052)혈당·(1053)혈당·(1054)혈당·(1055)혈당·(1056)혈당·(1057)혈당·(1058)혈당·(1059)혈당·(1060)혈당·(1061)혈당·(1062)혈당·(1063)혈당·(1064)혈당·(1065)혈당·(1066)혈당·(1067)혈당·(1068)혈당·(1069)혈당·(1070)혈당·(1071)혈당·(1072)혈당·(1073)혈당·(1074)혈당·(1075)혈당·(1076)혈당·(1077)혈당·(1078)혈당·(1079)혈당·(1080)혈당·(1081)혈당·(1082)혈당·(1083)혈당·(1084)혈당·(1085)혈당·(1086)혈당·(1087)혈당·(1088)혈당·(1089)혈당·(1090)혈당·(1091)혈당·(1092)혈당·(1093)혈당·(1094)혈당·(1095)혈당·(1096)혈당·(1097)혈당·(1098)혈당·(1099)혈당·(1100)혈당·(1101)혈당·(1102)혈당·(1103)혈당·(1104)혈당·(1105)혈당·(1106)혈당·(1107)혈당·(1108)혈당·(1109)혈당·(1110)혈당·(1111)혈당·(1112)혈당·(1113)혈당·(1114)혈당·(1115)혈당·(1116)혈당·(1117)혈당·(1118)혈당·(1119)혈당·(1120)혈당·(1121)혈당·(1122)혈당·(1123)혈당·(1124)혈당·(1125)혈당·(1126)혈당·(1127)혈당·(1128)혈당·(1129)혈당·(1130)혈당·(1131)혈당·(1132)혈당·(1133)혈당·(1134)혈당·(1135)혈당·(1136)혈당·(1137)혈당·(1138)혈당·(1139)혈당·(1140)혈당·(1141)혈당·(1142)혈당·(1143)혈당·(1144)혈당·(1145)혈당·(1146)혈당·(1147)혈당·(1148)혈당·(1149)혈당·(1150)혈당·(1151)혈당·(1152)혈당·(1153)혈당·(1154)혈당·(1155)혈당·(1156)혈당·(1157)혈당·(1158)혈당·(1159)혈당·(1160)혈당·(1161)혈당·(1162)혈당·(1163)혈당·(1164)혈당·(1165)혈당·(1166)혈당·(1167)혈당·(1168)혈당·(1169)혈당·(1170)혈당·(1171)혈당·(1172)혈당·(1173)혈당·(1174)혈당·(1175)혈당·(1176)혈당·(1177)혈당·(1178)혈당·(1179)혈당·(1180)혈당·(1181)혈당·(1182)혈당·(1183)혈당·(1184)혈당·(1185)혈당·(1186)혈당·(1187)혈당·(1188)혈당·(1189)혈당·(1190)혈당·(1191)혈당·(1192)혈당·(1193)혈당·(1194)혈당·(1195)혈당·(1196)혈당·(1197)혈당·(1198)혈당·(1199)혈당·(1200)혈당·(1201)혈당·(1202)혈당·(1203)혈당·(1204)혈당·(1205)혈당·(1206)혈당·(1207)혈당·(1208)혈당·(1209)혈당·(1210)혈당·(1211)혈당·(1212)혈당·(1213)혈당·(1214)혈당·(1215)혈당·(1216)혈당·(1217)혈당·(1218)혈당·(1219)혈당·(1220)혈당·(1221)혈당·(1222)혈당·(1223)혈당·(1224)혈당·(1225)혈당·(1226)혈당·(1227)혈당·(1228)혈당·(1229)혈당·(1230)혈당·(1231)혈당·(1232)혈당·(1233)혈당·(1234)혈당·(1235)혈당·(1236)혈당·(1237)혈당·(1238)혈당·(1239)혈당·(1240)혈당·(1241)혈당·(1242)혈당·(1243)혈당·(1244)혈당·(1245)혈당·(1246)혈당·(1247)혈당·(1248)혈당·(1249)혈당·(1250)혈당·(1251)혈당·(1252)혈당

# 보스톤 평통 한미 노인회 사랑방 방문, 식사 대접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오은희 평통간사,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문수)가 5월 15일 수요일 보스톤 한미노인회(회장 한순용)의 사랑방 모임을 찾아 회원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며 시간을 함께 했다.

이날 참석한 90여명의 노인회 회원들은 한순용 노인회장의 준비하에 요가를 배운 후 이어진 한문수 회장의 "최근 경제 동향과 북한인권

"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다. 경제학 교수인 한문수 회장은 강연 도중 퀴즈로 회원들의 즐거운 참여를 이끌었다.

평통에서는 한문수 회장, 오은희 간사, 이한나 부회장, 이석원 부회장 등이 참여해 점심식사를 함께 나뉘며 민주평통에 대해 소개하고 보스톤 협의회가 해온 일들을 설명하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보스톤 한미 노인회 한순용 회장

은 평통 보스톤 협의회 한문수 회장이 임원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노인회는 매 달 첫째,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에 노스앤도버에 위치한 다문화교회 (57 Peters St. N. Andover)에 모여 노래 교실, 국민 체조, 요가, 강연 등 여러 가지 문화활동 프로그램과 점심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2면에 이어서

영화를 촬영, 다음 영화 프로젝트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이날 영화 만찬에는 선발된 8명의 인턴이 참가했다. 선발된 인턴은 하나 맥밀란(에머슨 칼리지), 이가현(액튼 하이), 함태수(링컨하이), 황재원 (어스틴 프렙), 황세린(보스톤칼리지), 한예린(필립

스 엑시터), 문지유(PVC차터스쿨), 아이린 신(노스이스턴)이며 이들은 미셸우 시장, 택키첸 MA 하원의원, 바나 하워드 MA 하원의원 그리고 투 누엔 우스터 시의원 사무실에서 여름방학동안 인턴으로 일하게 된다. 시민협회는 이들에게 2천 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장학기금 1백만달러를 기탁한 고광국, 고국화 서울대 동문 부부

## 서울대 미주 동창회 장학생 모집, 1인당 1만불 지원

### 4년제 대학 한인 재학생 대상, 6월말까지 접수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미주 동창회(SNUAA, 회장 이상강)가 한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 한인 대학 재학생이며, 최소 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1만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홍택 미주동창회 장학위원장은 “미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의 인재를 후원하는 취지로 시작된 장학

사업인 만큼, 올해도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심있는 한인 학생들의 지원을 권장했다.

지원자는 오는 6월말까지 서울대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SNUAA.org)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800자 내외)와 2명의 추천서를 받아 이메일(scholarship@snuaa.org)로 보내면 된다. 추천서의 경우, 추천인이

직접 장학회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선발된 장학생은 8월 31일까지 이메일로 개별 통보한다.

한편, 3년전 미주 한인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을 설립한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지난달 고광국, 고국화 동문으로부터 미주 한인 2세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100만달러를 기부 받았다. 한위원장에 따르면, 서울대 동문 중 미주 한인 학생들을 위해 미주동창회에 이처럼 거액의 장학기금을 기부한 건 고씨 부부가 처음이다.



## 보스톤산악회 6월 1일 제 11회 정기산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가 오는 6월 1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무실로크 마운틴(Mt. Moosilauke)으로 정기산행을 떠난다.

이날 산행은 조지브룩트레일을 타며 왕복 7.2마일, 산행시간은 약 5-6시간이다. 난이도는 5단계 척도로 3에서 4정도다.

산행 준비물로는 배낭, 스틱,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식수, 간편 중식이 필요하며,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특히 정상 부근에서는 바람이 강하고 기온 변화가 클 수 있으니 여름에도 장갑과 바람막이 모자 달린 자켓을 준비해야 한다.

산행 당일 집결지는 뉴햄프셔 파크앤라이드(Park&Ride, Exit 2 of RT93)의 보스톤의스프레스 버스터미널(10 Raymond Avenue, Salem, NH)이며 오전 7시까지 모여야 한다. 회비는 20불이다.

산행 신청은 5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시 원하는 조와 집결 장소, 차량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산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스톤 산악회 카페(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617-780-9588(들꽃향기)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신문을 독자여러분 집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디지털 신문 이메일을 여러분 집에 격주로 배달해드립니다.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태블릿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신문 전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기사를 원하시면 바로 클릭만 하시면 PDF 지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시면 위의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줄이고 싶으시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 첫해 밀리어네어텍스, 예상 뛰어넘는 18억달러 수익

## 교육사업 및 교통 부분 재정 투자 가속화 될 듯 상원의장 제안한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 가능성 높아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밀리어네어텍스' 시행 첫해 예상을 뛰어넘는 세수를 거둬들여 교육 및 교통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주 관계자에 따르면 연소득 1백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4%를 부과하는 이세금은 올해 회계연도 마감을 3개월정도 남기고 18억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시행 첫해인 2024 회계연도 밀리어네어텍스 수익을 예상해 주정부와 의회가 책정한 지출은 총 10억달러로 초과 세수가 8억달러에 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는 대부분이 주의 비상저축 계좌에 예금이 된다. 비상계좌는 특별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주세청(DOR)은 아직 정확한 밀리어네어텍스로 인한 세금수익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현재 주 관계자가 밝힌 초과 수익은 최초 이 프로그램을 제안했던 측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글로브는 지적했다. 반대 측은 고소득자들의 대탈출로 예상보다 적은 세금을 거둘 것이라 주장했으나, 적어도 올해는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밀리어네어텍스 부과를 2022년 주민투표에 올리는데 역할을 했던 유니온 중심의 단체 레이즈업매사추세츠의 앤드류 파나타노 대변인은 "법안 반대측은 고소득자들이 매사추세츠를 떠날 거라 주장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고 말했다.

2022년 4%의 밀리어네어텍스가 주민투표

에서 통과하자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매사추세츠 예산정책센터(Massachusetts Budget and Policy Center)는 최소한 20억달러의 세금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정부는 지난해 총 예상 수익을 17억달러로 잡았으며, 의회는 첫해 밀리어네어텍스 수익이 불분명함에 따라 10억달러로 지출 금액을 정했었다. 이 세금 기반 지출을 10억달러로 제한할 것을 권장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세금은 지난 한 분기동안 14억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당초 기대를 뛰어넘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백만장자세 뿐만 아니라 전체 세수익에서도 주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10억달러 가량 많은 세수를 올해 4월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예상 보다 훨씬 적은 세수익을 냈던 지난해 4월과 대조적이다. 주정부는 이로 인해 지출을 줄이고 일부 부분의 고용을 동결했었다.

맷 고르즈코비치 주정부 예산수석은 대부분의 초과수익은 '밀리어네어텍스' 와 자본소득 세금으로 인한 것이며 이 초과세수는 부족한 주정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세수항목이라고 말했다.

밀리어네어텍스는 이로 인해 거둔 세금을 의무적으로 교육과 교통부분의 개선에 사용토록 지정한 특수목적세다. 또한 자본소득세는 반드시 주 저축계좌에 유치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고르즈코비치 수석은 현재 회계연도 말인 6월까지 세수가 충분할 것으로 예측했다.

매사추세츠주는 최근 납세자들의 이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파이어니어 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매사추세츠에서는 많은 납세자들의 이주로 43억달러의 세금수익을 잃었다. 이는 2020년에 비해 40%나 증가한 것이다.

보스톤재단의 산하 연구기관인 보스톤 인디케이터스에 따르면 약 25,200명의 납세 연령의 순 인구유출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대졸 이상의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이었다.

이 같은 순인구감소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다만 매사추세츠의 부족한 주택과 높은 주택값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이 같은 인구감소세는 2022년부터 2023년 중남미 난민들의 유입 증가로 인해 다시 11,500명이 증가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수성향의 단체 매사추세츠재정동맹의 폴카니 대변인은 "단기적으로 백만장자세

로 인한 예산 증가를 기록할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예산 감소분이 이를 뛰어넘게 될 것" 이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매사추세츠예산정책센터의 피니아스 백산달 회장은 "이번 밀리어네어텍스의 유입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5년 전 분석으로 매사추세츠 주는 20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그 때보다 소득이 상위층에 더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주상원 예산위원장인 마이클 로드리게스는 20일 올해 예산 초과분은 약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안 규정에 따르면 이 초과분의 85%는 도로보수, 학교건물 건축, 또는 대형 대중교통 작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로드리게스 위원장은 "교통과 교육 분야의 지출이 아직도 정말 절실한 관계로 이 돈을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보스톤 박사학위 저소득자들 불안한 삶 "일자리가 없다"

▶▶1면에 이어서

비상근 교수직(시간 강사)으로 알하게 된다.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는 비상근 교수나 정규직 교수가 별차이가 없다. 이들은 박사학위(PhD)를 가졌고 학생들은 이들은 "교수님"이라고 호칭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끝과 끝처럼 간격이 크다. 비상근 교수직은 건강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며 한 강의마다 \$3,000에서 \$7,000을 받으며 한 대학에서 다른 대학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미 교육자연합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약 30%의 비상근 교수들은 1년당 \$25,000이하를 연봉을 받는다. 또 다른 30%는 \$25,000에서 \$50,000 소득을 올린다. 그런 가운데 지난 몇십년간 비상근직은 정교수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수 채용이 거의 없는 곳은 사회과학, 인문학, 그리고 생물학을 비롯한 일부 자연과학 관련 전공이다. 리차드 라슨 MIT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사회과 교수는 많은 교수들은 일생에 걸쳐 수많은 박사학위 학생들을 배출해 내며 이들 중의 일부는 교수가 된다고 지적했다.

현실 세계에서는 박사학위 학생들 중에서 20% 미만만 정규교수직을 갖게 된다. 화공과 및 컴퓨터 사이언스는 쉽게 일반 회사에 취직이 되기도 한다.

텡스대학에서 영문학 PhD 학위를 받은 크리스티나 에이킨스씨는 시간 강사로서 생활을 이어 가보려고 했다. 1년 반동안 4-5개 강의를 3곳의 대학에서 맡고 있으며 이는 매우 힘들지만 아주 일반적인 비상근 교수들의 일상이다.

에이킨스씨는 특히 인문학계의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들은 매우 불안정한 직업을 가져



야하는 실제적인 위협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같은 처참한 상황이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들은 그들이 누구보다 뛰어나다 생각해서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부정에서 기인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불안정한 직업의 위협은 너무 크다. 매사추세츠주는 가장 대졸자가 많은 주임과 동시에 가장 대학원 졸업자가 많은 주이기도 하다. 많은 고학력자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는 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고학력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더구나 보스톤 지역의 높은 주택 비용은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교수직이 이처럼 휘박한 상황에서도 각 대학들은 박사학위 학생을 입학시켜 계속 학위를 양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대학원생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대학원 생들은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깊게 공부해 왔기 때문에 전공분야의 아주 깊은 내용을 사사할 수 있다. 교수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여긴다. 대학은 박사학위자들에게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어떤 커리어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또한 대학들은 재정적인 이유로 대학원생을 계속 받아들인다. 대학들은 대학원생들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 운영한다. 최근 BU 대학원생들의 과업은 이들이 상당수 강의를 맡고 있거나,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때론 실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대학의 사업모델은 많은 저렴한 연구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강의실에도 대학원생들과 비상근 교수 모두에게 나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안 코빈 씨는 지난 15년간 박사학위 학생, 박사후과정, 비상근교수 직을 지내왔다. 최근 하버드대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정규연구원으로 채용되면서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치료보험을 갖게 됐다.

보스톤칼리지에서 철학박사학위 받은 그는 브리검앤위민스 박사후 과정으로 일했었다. 그는 최근까지 1년에 \$50,000정도를 벌었다. 자녀가 있는 그는 따라서 밤에는 늘 야간 강의를 맡았으며 가장 빠른 시간에 논문을 쓰곤 했다. 또한 주어진 일은 무엇이든 했다. 불안정한 삶을 이어간 끝에 마침내 안정적인 삶의 범주에 합류한 것이다.

에이킨스 씨는 정규직을 잡는 것이 꼭 성공의 지표는 아니라고 말했다. 비록 현재는 저소득으로 일하고 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졸업식날 친구들과 법대를 지원해야하나 고민했음을 털어냈다.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연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팝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보스턴칼리지(보스턴칼리지 웹사이트 캡처)

# 포브스 선정 '뉴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스턴칼리지 포함

## 10개의 공립대와 10개의 사립대 '뉴 아이비리그'로 지칭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경제 매거진 포브스가 기존의 아이비리그와 소위 아이비 플러스 대학들 외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립 및 공립 아이비 대학들을 발표했다.

이 대학들 선정을 위해 포브스는 재학생 4천명 이상의 1700여 대학 중 SAT와 AP 입학성적이 가장 높고 입학율이 20%이하(공립은 50%)인 갖춘 32개 대학을 추렸다. 이후 인사 담당 매니저들에게 “모든 기업들이 선호하는 똑똑하고 목적의식이 있는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10개 우수학교를 고르도록 했다. 이를 “뉴아이비리그”라 명명했다.

10개의 사립 우수학교에는 보스턴 칼리지가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보스턴 칼리지 입학처장 그랜트 고셀린은 "포브스의 뉴아이비 대학 명단은 우리 학생들의 질과 인문과학

교육을 통해 복잡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외부에서 검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브스 편집자들은 “이들 10개교는 워싱턴DC와 9개 주에 분포되어 있으며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물론 기업들에게도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8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아이비 플러스로 명명되는 MIT, 스탠포드, 시카고 대학, 듀크 대학은 제외되었다.

- 10개 사립대학
- Carnegie Mellon University : Pennsylvania
- Emory University : Georgia
- Georgetown University : District of Columbia
- Johns Hopkins University : Maryland
- Northwestern University : Illinois
- Rice University : Texas

- University of Notre Dame ; Indiana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California
- Vanderbilt University : Tennessee
- 10개 공립 대학 선정에서 포브스는 SAT와 AP 등의 시험성적을 고려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의 공립 대학들은 모두 제외했다. 다음은 10개 주립대 명단이다.
- Binghamton University : New York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Georgia
- University of Florida : Florida
-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Illinois
- University of Maryland : College Park
- University of Michigan : Ann Arbor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Chapel Hill
- University of Texas : Austin
- University of Virginia : Virginia
-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 hsb@bostonkorea.com



# 코스트코, 올해 소비자의 허 찌르는 가격인상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인플레이션이 완화조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가 일부 품목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추가적인 가격인상도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전체적 물품의 가격인상은 단행하지 않고 있다. 리처드 갤런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수송비 인하로 인해 가구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20-30%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일부 품목의 가격을 슬그머니 올렸다. 첫 번째로 가격이 오른 품목은 커클랜드 시그니처 오가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다. 이 품목은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뉴욕 브루클린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 \$16.99였던 이 올리브 오일은 현재 \$24.99이다.

코스트코 개솔린도 가격이 올랐다. 일반적으로 코스트코 개솔린은 시중보다 30에서 50센트 저렴하지만, 최근 개솔린 가격의 마진을 늘리기 위해 이를 인상했다. 갤런티 CFO는 개솔린 가격을 시장 가격 인상에 맞춰 올림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주유소는 많은 이익 마진을 남기지만 코스트코는 약간의 수익만 올리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트코의 회원 비용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갤런티는 코스트코 회원비 인상을 암시했다. 골드 회원은 \$5, 익제티브 회원은 \$10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hsb@bostonkorea.com

**HURAM | 성형외과**

인 차열 높은 고국방문 여행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 의료 서비스, 최상의 케어 서비스입니다.

환자 경험에 대한 최상의 케어 서비스, 최상의 케어 서비스입니다.

비율로 인 수익률 154%	수익률 154%	수익률 660%	<b>HURAM</b> 성형이벤드
비율로 인 수익률 330%	비율로 인 수익률 264%	비율로 인 수익률 220%	비율로 인 수익률 550%
비율로 인 수익률 220%	비율로 인 수익률 220%	비율로 인 수익률 220%	비율로 인 수익률 220%

김수남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요가송의 5분요가

# 뱃살 감량 끝판왕 운동 : 200 reps 챌린지



안녕하세요 요가강사 송하연입니다. 2주마다 업그레이드되는 복근 운동! 오늘은 제 3탄, 의자를 이용한 200 REPS 챌린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칼럼 설명을 먼저 읽어보시고, 제 유튜브 채널(yoga songhayeon)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는 Shorts 영상에서 최근 다른 유튜브와 리믹스로 하는 운동 영상을 따라해보시면 되구요, 제 한국어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에도 비슷한 시퀀스로 좀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올릴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오로지 뱃살만 빠지는 운동은 없습니다. 전신의 균살이 골고루 빠지려면 하기 싫더라도 꾸준히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러닝, 수영 등)과 병행해서 복근 운동 해주셔야 원하는 만큼 뱃살 감량에 성공하실 수 있어요!!

### 1. High & Low x 50 reps

1단계 의자를 앞에 두고 두 다리를 의자 위로 뻗습니다.

2단계 다음엔 무릎을 접었다가 다리를 의자 밑으로 집어 넣으세요.

3단계 복부를 강하게 수축한 상태에서 1,2단



계를 차례로 반복합니다.

4단계 한번에 50개가 힘들다면 10개씩 5세트로 진행하셔도 좋아요.

TIP! 초보자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언제든 중간에 휴식하고(단 휴식은 20초 넘지 않게) 다시 시작해보세요.

### 2. Scissors x 50 reps

1단계 한다리만 의자위로 뻗고, 다른 다리는 의자 밑으로 뻗어 줍니다.

2단계 무릎을 접었다가 반대로 가위질 하듯 뻗어줍니다.

3단계 1,2단계를 5회 반복하면서 하복부를 자극시켜주세요.

TIP! 다리를 뻗는 게 힘들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 진행해도 괜찮아요.



### 3. Half Circle

1단계 두 다리를 모으고 두 다리를 좌우로 무지개 모양을 상상하며 움직입니다.

2단계 두 발을 중앙으로 올릴때 의자에 부딪치지 않게 최대한 높게 다리를 들어주세요

3단계 옆구리의 자극에 집중하면서 50개에

도전해봅니다. 아자아자!!!!

TIP! 난이도가 높은 동작이므로 중간에 휴식을 갖고 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4. Cool Down

1단계 영상을 반복하며 200개에 도전한 후, 두 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휴식합니다.

2단계 두다리를 펴고 가슴을 허벅지 앞쪽으로 가져옵니다.

3단계 옆구리의 자극에 집중하면서 50개에 도전해봅니다. 아자아자!!!!

TIP! 빨라진 호흡을 천천히 진정시키며 긴장했던 허벅지, 허리,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 송하연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강사로부터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혹은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http://www.yogafullness.life)

#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전 세계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TALK YOGAFULLNESSLIFE

@YOGASONG\_HAYEON

CONNECT@YOGAFULLNESS.LIFE

WWW.YOGAFULLNESS.LIFE



# 그레이트 보스턴 집값, 사상최고 95만달러 찍어

### 내집마련 꿈 점점 더 멀어져, 여름 성수기엔 백만달러 예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4월 그레이트 보스턴 주택시장에는 그동안 묶였던 매물들이 나오면서 거래가 늘었으나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그레이트보스턴부동산중개인연합(GBAR)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4월 주택 중간가격은 지난해 4월에 비해 16% 오른 \$950,000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기록했던 최고가 \$910,000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참고로 2023년 4월 중간값은 \$817,250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집값상승의 주범이었던 극심한 매물 부족현상이 완화되는 조짐이 시작됐다. 4월 거래량은 지난달에 비해 12% 늘었고 매물은 약 30%가 늘었다. 일반적으로 집값은 여름 중에 최고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 여름 성수기에는 1백만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20% 다운페이먼트만도 \$200,000다.

그레이트 보스턴 주택 중간값이 1백만달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집을 구매하려는 구매자들에게는 내집마련은 점차 먼 꿈

이 되어가고 있다. 이 같은 주택문제에 해법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지만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보스톤 집값 상승의 이유는 여러 가지다. 수십년된 조닝 규정으로 인한 집 공급부족, 높은 금리 등이 주요 이유다. 프레디맥의 지표에 따르면 30년 고정 금리는 7%에 달해 이는 2022년 이전 금리의 두배에 달한다.

높은 금리는 높은 월 모기지 상환금을 뜻하며, 집 소유주들이 기존의 집을 팔아 높은 금리의 집 구매를 꺼리면서 매물의 부족으로 귀결됐다. 따라서 지난 2월까지의 극심한 매물 부족으로 인해 구매자들은 구매할 만한 집이 얼마 없자 구매를 포기했다.

그러나 4월들어 이 같은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금리는 비록 그대로 유지됐지만 금리인하를 기다리던 집 소유주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매물이 점차 늘기 시작했다. 4월에는 이 같은 상황의 호전에도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 그레이트보스턴은 물론 워렌 그룹의 집계에 따르면 주 전역 단독 주택 중간 가격도 10% 오른 \$610,000였다.

보스톤대학 경제학과 부교수 아담 구렌 박사는 보스톤의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높은 금리로 인해 아주 주택이 절실한 사람들만 구입을 하고 있으며, 기꺼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므로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택공급의 부족 문제다. 집값 상승의 궁극적인 원인인 공급 부족은 금리와 건축비용 상승으로 신규 주택 건축이 정체상태 빠진 것에 기인한다.

“주택공급이 충분히 증가되지 않는 이상 집값상승은 지속될 것이며 매물이 충분히 증가할 때까지 집값은 유지될 것” 이라고 구렌 교수는 내다봤다. 주택의 높은 중간가격이 의미하는 것은 저렴한 주택도 동반 상승하는 것이므로 젊고 낮은 소득의 가정들이 집을 장만하기 쉽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젊은이들이 매사추세츠를 떠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보스톤 인디케이터의 연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22,600명의 25-44세가 매사추세츠를 떠났다. 이는 매사추세츠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hsb@bostonkorea.com



# 미국 성인 '재정상황 괜찮다' 이상 응답 72%...7년만에 최저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고(高)물가 여파로 미국인들 가운데 현재 재정적으로 괜찮거나 편안하다고 여기는 이들의 비율이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개한 '2023년 미국가계 경제적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성인 가운데 재정적으로 '괜찮다'라고 답한 비율은 39%,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였다.

두 답변을 합한 비율은 72%로 지난 2016년(70%)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의 78%보다는 2년 만에 6%포인트나 낮아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2022년 7월)까지 올랐던 2022년과 비교해도 1%포인트 하락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재

정적 우려 사항으로 남았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최근 2년 새 경제적 웰빙 수준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중 재정적으로 괜찮다거나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총 64%로 자료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21년(75%)과 2022년(69%)과 대비해선 답변 비율이 각각 11%포인트, 5%포인트 하락했다.

연준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는 최근 몇년 새 웰빙 수준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그룹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20일~11월 5일 이뤄진 미국가계 경제·의사결정 설문조사(SHED)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pan@yna.co.kr

**성 안토니오 들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번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ing,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COMPASS

Achieved in 2023

\$25M+

TOTAL SALES

40+

TOTAL # OF TRANSACTIONS

# I've helped 410+ clients find their place in Greater Boston

부동산 전문가,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FINANCIAL FREEDOM)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모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실력, 열정 그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더욱 풍성한 2024년 새해가 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Awards/Honors:

- 2022, 2023 Boston Magazine Top Real Estate Producers
- Achieved top-ranked (#1) solo agent status at Compass Cambridge Office, demonstrating top performance in sales and client satisfaction
- Wall Street Journal America's Best Real Estate Professional List
- Hosted the Boston episode of 'The American Dream', a national TV show, highlighting Boston's real estate, and lifestyle to a nationwide audience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엔비디아 "차세대 산업혁명 시작"...시간외주가 1천달러 돌파

## 1분기 실적·2분기 전망 시장 예상 상회...주식 10대 1 분할.....젠슨 황 CEO "블랙웰 시 칩 이번 분기 출하...더 많은 성장 이끌 것"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과 10대 1의 주식 분할 발표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1천 달러를 넘어섰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47분(서부 오후 2시 47분)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정규장보다 6.16% 오른 1천8달러에 거래됐다.

정규장이 아닌 시간외 거래이긴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1천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가는 1천20달러 안팎까지 치솟기도 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2~4월)에 매출은 260억4천만 달러(35조6천억원), 주당 순이익은 6.12달러(8천366원)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시장조사기관 LSEG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246억5천만 달러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5.59달러를 상회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71억9천만 달러에서 262% 급등했고, 주당 순이익은 1.09달러에서 4.5배 증가했다.

엔비디아는 또 2분기(5~7월) 매출을 280억 달러로 예상했다. 이는 LSEG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 266억1천 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월가는 주당 순이익도 5.95달러로 예상한다.

AI 칩을 포함하는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 부문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427% 급증한 226억 달러의 매출을



엔비디아 본사

기록했다.

이어 "대형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엔비디아 AI 인프라를 대규모로 설치하고 확대하면서 강력한 성장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PC용 그래픽 카드를 포함하는 게임 부문은 18% 증가한 26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62% 증가했다"며 "이는 AI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지난 3월 공개한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생산하고 있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블랙웰은 올 하반기 본격 출시 예정이다.

황 CEO는 "차세대 AI GPU가 더 많은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우리는 다음 성장의 물결(next wave of growth)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애널리스트와의 전화회의(콘퍼런스콜)에서 "블랙웰 AI 칩이 이번 분기에 출하될 것"이며 "다음 분기에는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세대 산업 혁명이 시작됐다"며 "기업과 국가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1조 달러 규모의 기존 데이터 센터를 가속화된 컴퓨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센터인 AI 공장을 구축해 새로운 상품인 AI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또 주식을 10대 1로 분

할한다고 밝혔다.

주식 분할은 내달 10일부터 적용된다.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은 2021년 7월 4대 1로 분할한 이후 3년 만이다. 분기 배당금도 0.10 달러로 기존

0.04달러에서 150% 높였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46% 하락 마감한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상승 폭을 넓히며 약 4% 상승해 99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taejong75@yna.co.kr



**소중한 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난기류 아수라장' 싱가포르항공기... "사람·물건 휩휩 날아다녀"

### 비상용 산소마스크 주렁주렁...한국인 탑승객 1명 방콕서 부상 치료

(방콕=연합뉴스) 강중훈 특파원 = "나와 아내는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고, 통로를 건넌 일부 승객은 공중제비를 돌았어요."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 21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에 비상착륙한 런던 발 싱가포르항공 SQ321편 여객기에 타고 있던 영국인 제리 씨가 전한 끔찍한 비행 기억이다.

아들 결혼식 참석을 위해 여행 중이었다는 그는 BBC에 "비행기가 급락하기 전 경고가 없었다"며 "가족 중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이 운 좋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국 승객 앤드루 데이비스 씨는 "끔찍한 비명과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며 "공중에는 물건이 날아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커피를 뒤엎었다"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난기류가 심했다"고 말했다.

다른 승객 자프란 아즈미르 씨는 "갑자기 비행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들이 천장으로 튀어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탑승자들이 머리에 큰 상처

가 나거나 뇌진탕을 입었다"며 "휴대전화와 신발도 날아다녔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방콕에 비상착륙한 여객기 외부에는 별다른 사고 흔적이 없지만, 공개된 사진을 보면 기내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

비상용 산소마스크가 주렁주렁 천장에 매달려 있고, 바닥에는 음식과 수하물을 비롯한 온갖 물건이 쏟아졌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73세 영국 남성이며,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된다.

여객기가 비상착륙한 방콕 수완나품공항 측은 부상자 중 7명은 중상이라고 밝혔다.

여객기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한국인 탑승자는 1명이다. 애초 이 탑승자는 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콕에서 치료 중인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비상착륙한 여객기의 부상자들이 입원한 사미티벳 병원에 따르면 한



아수라장이 된 싱가포르 항공기내(유튜브 화면 캡처)

국인 탑승자는 목 등의 부위에 근육통 증세를 보였으며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으며 23일 퇴원 예정이라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싱가포르항공 고준풍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SQ321편에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 등 143명을 태운 대체기가 오늘 아침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며 "방콕에는 승객 79명과 승무원 6명이 남았다"고 말했다.

방콕에 남은 탑승자들은 부상자

외에 가족 등 일행이 포함됐으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싱가포르항공은 덧붙였다.

전날 싱가포르를 향해 고도 1만1천 300m에서 순항하던 사고 여객기는 이륙 약 10시간 후 미얀마 인근 안다만해 상공에서 5분 만에 9천400m까지 급강강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고, 기장은 의료 비상상황으로 판단하고 방콕에 비상착륙했다.

일기예보서비스 아큐웨더(Accuweather)는 "항로에서 빠른 속도로 발달한 뇌우가 극심한 난기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큐웨더는 "뇌우는 종종 시속 100마일(약 161km)의 강력한 상승 기류를 동반한다"며 "항공기 바로 앞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기장이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비상착륙한 여객기는 16년 된 보잉 777-300ER 기종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태국으로 사고 조사 담당자를 보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도 사고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double@yna.co.kr

##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 채상병특검법 與이탈표 얼마나... '특검법 시즌2' 가능자 될수도

### 與지도부 "이탈표 많지 않을 것"... 김웅 "여당 의원 10명 정도 찬성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인채원 기자 = 오는 28일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만큼의 '이탈표'가 나올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는 17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 두 자릿수까지 늘어난다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유이동·김웅 등 3명을 제외하면 추가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탈표가 두 자릿수 규모까지는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뜻을 모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가 될 것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두 표는 (더) 나올 수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일부 찬성파는 이탈표가 10표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김웅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0명 정도 찬성하지 않을까"라며 "이탈표가 거의 없으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비판을 들은 척도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권에서도 무기명 투표에다 채상병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두 자릿수의 여당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무기명 투표인 점을 강조하며 '양심에 따른 표결'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여당 지도부에서는 상대 당의 분열을 획책한 행동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번 여당의 이탈표 규모는 22대 국회에서 전개될 '특검 시즌2'의 가능자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재표결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22대 국회에서 이들 특검법이 발의되고,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보다 더 힘든 방어전을 치러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pc@yna.co.kr

## 김의장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 돼도 28일 본회의서 표결

### 尹 겨냥 "DJ도 '웃 로비' 특검 수용...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고상민 한혜원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MAY 24th - MAY 30th, 2024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GOOD TIMES START WITH K-BBQ SOY-MARINATED PORK**  
Juicy, tender, and flavorful, this simple recipe will impress your taste buds and guests. H 마트에서 육즙 가득하고 달콤 짭잘한 간장 양념 돼지구이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b>Sweet Potato</b> 고구마 10 LB/BOX <b>\$17.99</b>	<b>Packed Garlic</b> 팩마늘 5 PCS/PKG <b>\$1.99</b>	<b>Sand Pear</b> 샌드 배 LB <b>\$2.99</b>	<b>Kabocha</b> 단호박 LB <b>\$0.99</b>	<b>Fuji Apple</b> 후지사과 LB <b>\$1.99</b>
<b>Orri Mandarin</b> 오리 만다린 LB <b>\$2.99</b>	<b>Sweet Potato</b> 고구마 LB <b>\$2.49</b>	<b>Ginger</b> 생강 LB <b>\$2.99</b>	<b>Tommy Mango</b> 타미 망고 BOX <b>\$12.99</b>	<b>PULMUONE Tofu</b>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b>\$3.99</b> FOR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U.S.D.A. CHOICE</b>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9.99</b>	<b>U.S.D.A. CHOICE</b> Fresh Beef Short Ribs 생 소 LA 갈비 LA STYLE/LB <b>\$14.99</b>
Fresh Boneless Pork Loin Chops 생 뼈없는 등심 폭찹 LB <b>\$5.99</b>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b>\$6.99</b>
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생 뼈없는 닭가슴살 LB <b>\$3.99</b>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b>\$8.99</b>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 UP/LB <b>\$12.99</b>	HAIQ Premium Frozen Oyster 해오름 청정생굴 2 LB/PKG <b>\$12.99</b>
Headless White Shrimp 머리없는 흰새우 26-30'S/LB <b>\$4.99</b>	TONGTONGBAY Frozen Tilapia Fillet 통통배 틸라피아 필렛 LB <b>\$3.99</b>
TONGTONGBAY Frozen Seafood Mix 통통배 해물모듬 1 LB/PKG <b>\$4.49</b>	Live Mussel 살아있는 홍합 2 LB/BAG <b>\$3.99</b>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b>\$11.99</b>	H MART SMART CARD ONLY ORGANIC FARM Organic Roasted Chestnut 유기농장 유기농 군밤 & 깻밤 UNPEELED - 5.29 OZ X 4 EA PEELED - 3.52 OZ X 2 EA <b>\$9.99</b> BOX
H MART SMART CARD ONLY 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SWEET CORN 2.82 OZ X 7 EA/BOX <b>\$10.99</b>	H MART SMART CARD ONLY ORION Peanut Ball Snack 오리온 오징어땅콩 3.45 OZ X 7 EA/BOX <b>\$9.99</b>

KOKUHO California Premium Rice 국보쌀 15 LB <b>\$14.99</b>	RAW NATURE Cooked White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7.4 OZ X 12 BOWLS/PKG <b>\$11.99</b>	NONGSHIM Shin Bowl Noodle Soup 농심 신 사발면 3.03 OZ X 12 BOWLS/PKG <b>\$14.99</b>	OHSUNG Hong Ramyun 오성 홍라면 MILD/HOT & SPICY 4.2 OZ X 20 EA/BOX <b>\$14.99</b>	KWANGCHEON Roasted Seaweed Living Box 광천 녹차김 리빙박스 (0.18 OZ X 16 EA) X 2 PKG/BOX <b>\$14.99</b>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b>\$10.99</b>	HAIQ Seasoned Bean Paste [Ssam-jang]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 2.2 LB <b>\$3.99</b>	HAIQ Korean Beef Short Rib BBQ Sauce 해오름 소갈비 양념 1.85 LB <b>\$3.99</b>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28.21 OZ <b>\$7.99</b>	JINGA Sliced Rice Cake 진가 쌀떡국떡 2 LB <b>\$2.99</b>
HAITAI Honey Butter Chip 해태 허니버터칩 4.23 OZ <b>\$2.99</b>	NONGSHIM Shrimp Flavored Cracker 농심 새우깡 14.1 OZ <b>\$6.99</b>	KOTO Portable Stainless BBQ Charcoal Grill 코토 스텐 차콜바베큐 화로구이 47 X 30 X 36 CM/EA <del>-\$39.99</del> <b>\$29.99</b>	HELLO HOME Portable Butane Gas Stove 헬로홈 휴대용 가스렌지 BLACK/EA <del>-\$23.99</del> <b>\$17.99</b>	Coating Gloves / Cotton Gloves 코팅 장갑 / 면 장갑 10 PAIRS/PKG <del>-\$5.99</del> <b>\$3.99</b>

**UNTIL MAY 30, 2024**

**JINGA**  
간장마늘장아찌

**PICKLED GARLIC WITH SOY SAUCE**  
Every Body's Favorite Banchan!

~~\$7.99~~  
**\$4.99**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b>이사 이계봉</b> DIRECTOR 781.654.5281 jlees@bostonpremierrealty.com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v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b>매니저 신보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김지현</b> 978.494.2043 jhykim@bostonpremierrealty.com	 <b>노미</b> 617.447.0501 mi@bostonpremierrealty.com	 <b>박주</b> 617.780.7639 ju@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b> 978.866.3248 jipark@bostonpremierrealty.com	 <b>이진주</b> 401.538.3397 jyee@bostonpremierrealty.com
 <b>박소</b> 617.338.0787 so@bostonpremierrealty.com	 <b>그레이스 김</b>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b>김수진</b> 617.528.6973 su@bostonpremierrealty.com	 <b>민소</b> 213.503.0347 so@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b> 413.507.1400 jipark@bostonpremierrealty.com	 <b>손정태</b> 617.913.3348 son@bostonpremierrealty.com
 <b>최진진</b> 617.877.0387 jin@bostonpremierrealty.com	 <b>이정순</b> 781.836.3412 sun@bostonpremierrealty.com	 <b>한혜숙</b> 781.959.1214 heesok@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현</b> 617.915.1162 jhy@bostonpremierrealty.com	 <b>이준규</b> 617.943.0728 jy@bostonpremierrealty.com	 <b>박지</b> 404.641.9102 jipark@bostonpremierrealty.com
 <b>Tammy Woolfolk</b>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b>Nancy Wang</b> 617.230.8482 nancy@bostonpremierrealty.com	 <b>Shirley Zhao</b> 857.531.0314 shirley@bostonpremierrealty.com	 <b>Vivian Ye</b> 617.936.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b>Xian Dole</b> 413.527.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b>Lu Jiong</b>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b>John Tran</b>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b>Rebecca Phu</b>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b>Michael Sorra</b>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b>Linda Tu</b>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b>Jun Wang</b> 646.278.2623 jun@bostonpremierrealty.com	 <b>Lily Wang</b>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b>Crystal Wei</b> 413.308.0255 cwei@bostonpremierrealty.com	 <b>정혜민 박</b> 201.446.8995 min@bostonpremierrealty.com	 <b>재미크 김</b> 781.506.0409 mik@bostonpremierrealty.com	 <b>이신현</b>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b>Mini Belanger</b>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고물가에 쪼그라든 가계...가구 실질소득 7년 만에 최대 감소

### 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실질 근로소득 통계작성 이래 최대 낙폭 .....대기업 상여금 줄며 고소득 가구 소득 감소...분배지표 개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소득 증가세에도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결과다.

올해 초 대기업 상여금 감소 영향으로 실질 근로소득이 2006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며 가구 소득 감소세를 견인했다.

◇ 가구 실질소득 감소 전환... "물가만큼 소득 못 늘어"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업 포함) 월평균 소득은 512만2천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가계소득은 3개 분기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 분기(3.9%)보다 크게 둔화했다.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329만1천원)이 1.1% 줄어든 영향이 컸다. 가계 근로소득은 지난해 대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상여금 감소 영향으로 2021년 1분기(-1.3%)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사업소득(87만5천원)은 임대소득 증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소득 증대 등 영향으로 8.9% 늘었다. 이전소득(81만8천원)도 국민·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5.8% 증가했다.

명목소득 증가에도 물가를 반영

한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 기준 2021년(-1.0%)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2017년 1분기(-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실질 근로소득은 3.9% 줄며 감소세를 주도했다.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동향수지과장은 "물가만큼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줄어드는 여윗돈... 흑자율 7개 분기 연속 감소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8천원으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비소비지출은 이자 비용 증가 등 영향으로 1.2% 늘어난 107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1.4% 늘어난 404만6천원이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13만8천원으로 2.6% 줄며 3개 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흑자율을 뜻하는 흑자율은 28.1%였다. 흑자율은 2022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이어졌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가구 비율은 26.8%로 1년 전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5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보다 2.3포인트(p) 하락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한 시민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인 평균소비성향은 71.9%로 1년 전보다 1.2%p 올랐다.

◇ 소득분배 지표 개선... 고소득 가구 상여금 감소 영향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115만7천원, 1천125만8천원이었다.

1분위 가구 소득은 근로·이전소득 중심으로 1년 전보다 7.6% 늘었고

5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줄며 2.0% 감소했다. 5분위 소득 감소에는 삼성전자·LG 등 대기업의 상여금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1분위 가구 소득은 늘고 5분위 가구는 줄면서 소득 불평등 지표는 개선됐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 5.98배로 지난해 1분기(6.45배)보다 0.47p 하락했다. 상

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98배라는 의미다.

1분위·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각각 131만2천원, 509만8천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6%, 0.5%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연간지표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krikaka@yna.co.kr

# 물가·환율 불안에 금리 11연속 동결...성장률은 21→25%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한국은행이 23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불씨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려잡았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사라졌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격차를 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릴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금통위는 회의 의결문에서 결정의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위험)가 커졌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는 만큼 긴

축 기조를 유지하며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전망한 물가 경로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 압력이 증대 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물가 경로에는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 농산물 가격 추이, 성장세 개선의 과급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도 이날 내놓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월 전망 당시와 같은 2.6%, 2.2%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경기와 관련해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는 2분기 중 조정됐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는 기존 2.1%에서 2.5%로 0.4%포인트(p) 상향조정됐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긴축 쪽으로 틀었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2022년 1·4·5·7·8·10·11월과 2023년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해 2월 동결로 개졌고, 3.50%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hanjih@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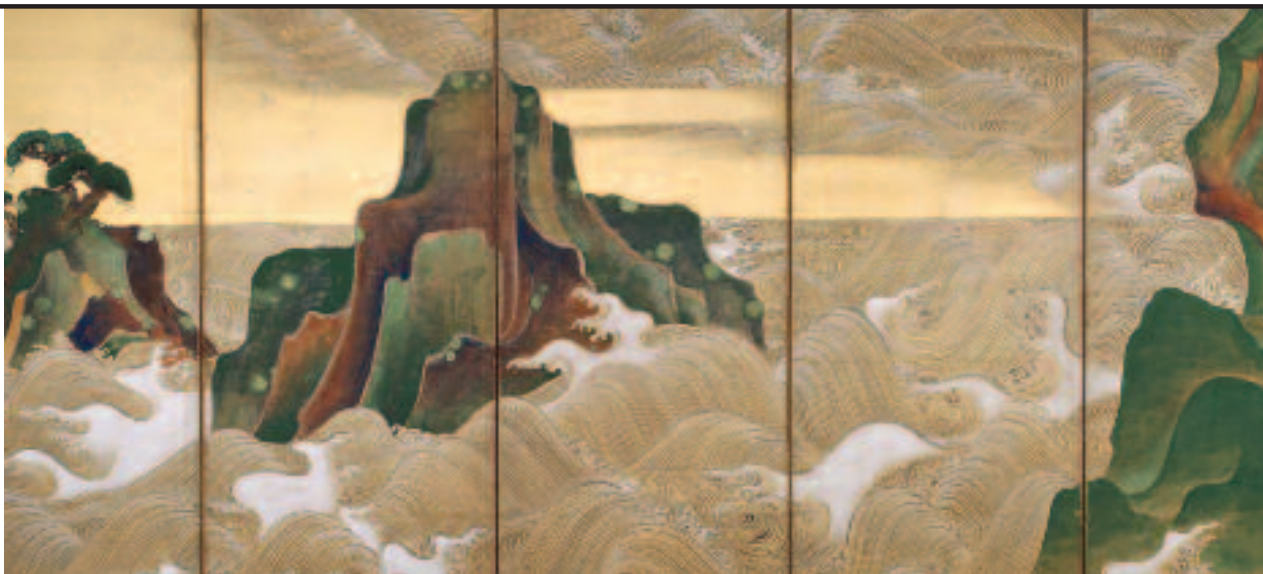
# ▶▶ MFA 에서 나를 만나자 ▶▶ 봄 이벤트

▶ 예술 ▶ 프로그램 ▶ 영화 ▶ 커뮤니티 ▶ 예술 ▶ 프로그램 ▶ 영화 ▶ 커뮤니티

갤러리

## 일본미술 전시

▶ 5월 11일재개장



영화상영

## 한류히트작: 세계를 감동시킨한국영화들

▶ 5월 16일부터

오픈하우스

## 메모리얼데이

▶ 5월 27일  
▶ 무료입장



#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Arts of Japan: Ogata Kōrin, Waves at Matsushima, 18th century. Six-panel folding screen; ink, color, and gold on paper. Fenollosa-Weld Collection. Hallyu Hits: Korean Films that Moved the World: Still from Parasite (2019), by Bong Joon-ho.

Hallyu Hits: Korean Films that Moved the World: Still from Parasite (2019), by Bong Joon-ho.

▶ 방문은 [mfa.org](http://mfa.org)에서 시작하세요

# 한재림 감독 "더 에이트 쇼'속 주최 측은 바로 시청자들"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 죽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엄청난 돈이 쌓이는 흑하면서도 가혹한 쇼. 이곳으로 초대된 참가자 8명은 배정받은 층에 따라 뚜렷하게 급이 나뉜다.

상층에 사는 '가진 자'들은 갖은 비열한 방식으로 하층을 착취하기 시작하고, '갓지 못한 자'들의 목숨 건 투쟁은 상층의 절대적인 권력 아래 너무나도 쉽게 수포가 된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새 시리즈 '더 에이트 쇼'를 연출한 한재림 감독은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관객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만든 작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더 에이트 쇼'는 시간 쌓일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쇼에 참여한 여덟 명의 이야기를 그린다.

참가자들은 이들을 관찰하고 있는 의문의 주최 측이 재미를 느낄 때마다 쇼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주최 측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온몸을 내던진다.

한 감독은 "시간을 벌어서 돈을 버는 쇼에 참여해 주최 측에 재미를 주려고 노력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렇게 '재미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를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쇼 초반에 참가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거나, 콧바람으로 리코더를 부는 장기자랑으로 주최 측의 관심을 끌지만, 이내 이들의 관심과 보상이 줄어들자 점점 더 자극적인 재미로 치달는다.

'8층'(천우희 분)은 마음에 드는 남성을 골라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두 참가자를 지목해 한 명의 얼굴이 괴범벽이 될 때까지 몸싸움을 시키기도 한다. 급기야는 벌칙으로 전기 충격기를 활용해 잔인하게 참가자들을 고문하며 시간을 때내기 시작한다.

한 감독은 "작품 속에 창작자로서 제 고민을 녹여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시청자들은 콘텐츠를 통해 의미를 찾으려고 했고,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는 콘텐츠를 좋은 작품이라고 평했지만, 요즘에는 콘텐츠가 순수한 오락거리여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런 작품들을 선호하지 않느냐"며 "모두가 도파민에 중독된 시대에 재미를 전하는 창작자로서 저는 어디에서 있어야 할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저도 짧고 자극적인 클립 영상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영화감독인데도 극장에 가면 앉아있는 게 힘들 때가 있죠. 그렇게 변화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감독으로서 어떤 재미를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어요. '관객이 원하는 재미를 줘야 하는 걸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 등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창작자로서 꾸준히 고민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에이트 쇼'에는 1층부터 8층까지, 다양한 계층을 상징하는 등장인물이 등장한다.

분당 1만원이 쌓이는 1층부터, 분당 13만원이 쌓이는 6층, 그리고 분당 34만원씩 쌓이는 최상위층 8층까지. 한 감독은 "어느 계층에 이입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게 보이기를 바랐다"며 "제가 알기로는 시리즈물 중 유일하게 대회 오프닝을 다르게 만들었고, 극 중에서도 각 캐릭터를 골고루 다루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등장인물들이 대표하는 층으로서 시청자들에게 와닿기를 바라는 마음에 개인적인 서사도 최대한 생략했다. 개성을 없애는 대신, 시청자들의 해석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인물로 그렸다"고 덧붙였다.

'더 에이트 쇼'는 22일 기준 국내 톱10 시리즈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비영어권 TV 시리즈 부문 7위에 올랐다.

입체적인 설정의 캐릭터들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야기가 흥미롭다는 호평과 함께,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이 많



아 보기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감독은 "재미의 끝까지 갔을 때는 결국 고통과 혐오만이 남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 서바이벌물에는 주

최 측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명백하게 약한 주최 측을 내세워 시청자들의 죄책감을 덜지만, '더 에이트 쇼'에서는 시청자들이 주최 측이 된 것처럼 느끼기를 의도했다"고 덧붙였다.

coup@yna.co.kr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PGA**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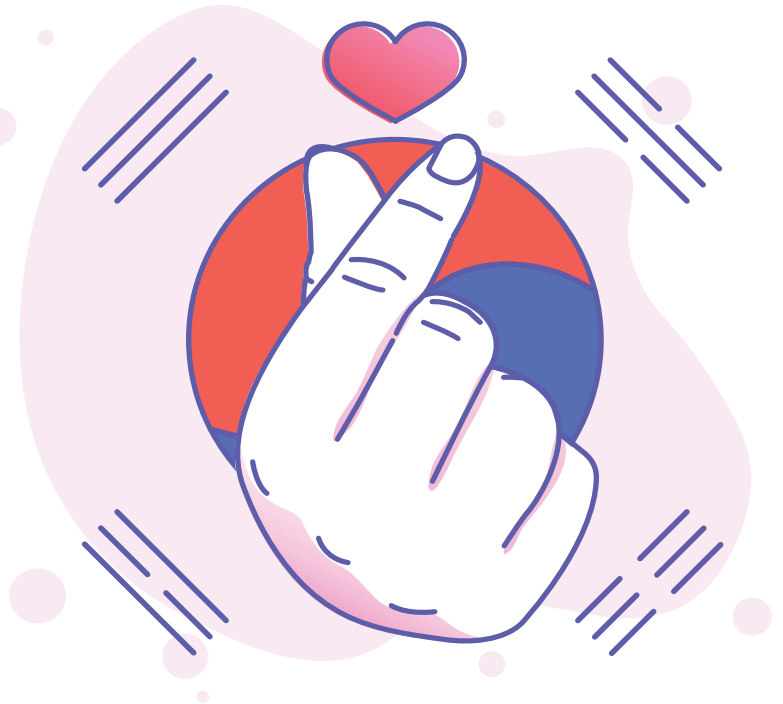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 K-Culture Contest



K-pop, Dance, 전통악기 연주, 사물놀이, 농악 등 한국을 상징하는 공연예술

- \* 참가 자격: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환영
- \* 참가 방법: 개인이나 단체의 5~7분 가량의 공연을 e-file 로 제작하여 e-mail 로 접수(swpark@comcast.net)
- \* 심사 방법: 2024년 7월 20일까지 접수된 팀 중에서 3개 팀을 선발하여, 동년 8월 18일(일), Portsmouth, NH 에 소재한 "Strawberry Banke Museum"(야외)에서 개최될 "NE BIPOC FEST" 행사장에서 결선 공연으로 우승팀 선발 (우승팀은 청중들에 의해서 선발)
- \* 상금: 1등: \$1,000.00  
2등(2팀): 400.00 씩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GC)
- \* 문의: 박선우(603-767-1356)



## 주최: 뉴햄프셔 한인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90) 액티브(Active) 투자의 문제점

사람이 운용하는 액티브 투자는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미래에 유망한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한다. 펀드 매니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도 많고 투자 돈도 풍부하며 그야말로 자나 깨나 기업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주식 선별가(Stock Analyst)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 결정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 투자자는 펀드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코로나로 '집콕' 생활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주식투자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운동 경기에 참관하기 어렵고 콘서트도 취소되었고, 도박장 가기도 힘들고, 여행도 갈 수 없기에 하루 대부분을 컴퓨터와 시간을 보내며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시점에 폭발적인 인기를 받은 펀드가 있다. 캐시 우드(Cathy Woods)가 운용한 아크(ARK) 펀드이다.

아크 이노베이션(ARK Innovation)펀드는 한때 높은 수익률을 발표하며 한순간에 인기를 끌어들였다. 캐시 우드는 TV 등 모

든 방송매체에 출연하며 본인이 투자한 기업들이 얼마큼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에 투자자는 열광하며 묻지마 투자한 것이다.

캐시 우드의 별명 '마마 캐시(Mamma Cathie)' 와 희망이라는 캐시 우드의 사진이 박힌 티셔츠가 유행했지만 이런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주식시장(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8% 이상 상승했는데 아크의 플래그십 펀드인 이노베이션 펀드는 오히려 19%나 폭락했다.

아크가 운용하는 6개 액티브 펀드의 전체 자산 총액도 작년 말 대비 올해 들어 30%나 급감하며 111억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 한창 전성기던 2021년에 기록한 최대액 590억 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80%가 사라진 것이다.

우드가 가장 많이 투자한 테슬라 주식은 올해 들어 거의 반토막 난 상태다. 테슬라를 제외하더라도 이노베이션 펀드를 구성하는 다른 주식도 올해 작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스트리밍업체 로쿠는 주가가 36%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44%나 하락했다.

우드는 최근 CNBC에서 약 \$170달러인 테슬라 주식이 5년 후에는 \$2,000달러까지 상승한다고 말한다. 얼마큼 신빙성이 있는 언급인가? 작년 한 해 동안 Nvidia 주식이 239% 폭등했는데 우드는 작년 1월 Nvidia를 처분했다.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면 현재 거의 4배로 불어난 것이다.

유전자 치료업체 인바이테(Invitae)기업이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시가 총액이 70억 달러를 넘어섰고 주가도 50달러 이상이었다. 그러나 기업이 쇠퇴하면서 주가는 1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며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5센트까지 폭락했다.

인바이테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에서도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가 투자한 생명공학 기업이다. 우드는 이 회사가 유전자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라면서 자사 포트폴리오 중 가장 과소 평가된 주식이라고 평가했었다.

ARK 인베스트먼트는 투자할 수 있는 자

금, 유능한 기업 평가 전문가, 막대한 정보력, 등에서 일반 투자자 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파산으로 이어지는 기업에 투자한 것이다. 펀드 평가 회사인 모닝스타는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가장 많이 손실한 펀드는 아크 펀드라고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손실한 금액이 무려 \$14.3 billion이기 때문이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는 최근 12개월간 연평균 18%, 3년간 마이너스 29%, 5년간 마이너스 1%의 수익률을 냈다. 이것은 S&P 500과 비교하면 한심한 수준이다. 1년 동안 2%, 3년 동안 8%, 5년 동안 14%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필자는 주위에 친지들의 투자 조언이나 어떤 특정한 주식 전문가의 투자 비법에 현혹하지 말고 미국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인덱스 펀드나 ETF로 구성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형성해서 운용하면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30))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화랑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미실의 손녀 영모(영모)는 김유신과 결혼하였다. 그 영모가 삼국유사에 부고(告)와 장지(葬地)로만 등장하는 재매부인(財買夫人)과 동일인임이 틀림없다. 그들은 김유신이 15세 풍월주로 오른 해인 임신년(612년)에 김유신의 외조모 만호태후의 명에 의하여 결혼하였다. 당시 김유신의 나이가 17세였다.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이 환갑의 나이에 맞은 지소부인(무열왕 김춘추와 김유신의 동생 문희가 낳은 딸)만 등장한다. 반면에 삼국사기(삼국유사에는 재매부인이 죽자 청연(靑淵)의 상곡(上谷)에 묻고 재매(財買)의 상곡(上谷)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권1, 기이)에는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 영모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서 현존하고 있다. 김유신이 살았던 경주시 교동(校洞) 집터, 집은 없어졌지만 김유신 가족이 마시고 살았던 우물, 그 재매(財買)이라 불리는 우물이 사적(246호)로 지정되어 현존하고 있다(1976년 지정). 재매정에 관한 전설같은 사실(史實) 한 토막을 보면 다음과 같다.

(644년(제27대 선덕여왕 13년), 김유신은 소관(蘇幹(3등급))으로 그 해 9월 상장군이 되어 백제의 성열성(省熱城(경상남도 의령?)), 동화성(同化城(경상북도 구미)) 등 6개의 성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645년 정월 귀경하였

으나, 왕을 배알하기도 전에 백제의 대군이 매포리성을 침공한다는 급보가 전해지자, 왕은 또 김유신을 상장군으로 삼아 방어하라고 명하였다. 김유신은 가족도 만나보지 못한 채 출정하여 2천 여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동년 3월 왕의 귀환 명령을 받고 돌아왔다. 거의 집앞에 도달할 무렵, 또 백제 군사가 국경에 진을 치고 있다는 급보가 전해지자, 왕은 김유신에게 또 출정하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김유신은 처자도 보지 못한 채 말머리를 서쪽으로 돌려야만 했다.

이 때에 가족과 종자들 모두 문밖에서 김유신을 기다렸다. 그런데 김유신은 대문 앞을 지나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지나가다가 50보쯤 되는 곳에서 말을 멈추고 종자에게 집가서 물을 떠오라고 명하였다. "우리 집 물맛이야 직도 옛날 그대로구나!" 라고 하고는 그냥 길을 떠나니, 이를 보는 모든 군사들이 "대장군도 이와 같은데, 우리들이야 어찌 골육의 가족들과 이별함을 한탄하리오." 라고 하며 전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물론 이때 김유신을 기다린 가족 중에는 영모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591년, 미실의 장남 하중은 풍월주의 위를 부제인 보리에게 물려주었다. 계사년(573년)에 태어난 보리는 하중보다 9살이나 아래였고, 둘은 인통(仁統) 서로 달랐지만 생각과 감정이 투합하여 형제보다도 더 가까웠다. 사실 둘의 관계는 내외종간이다. 보리의 부모는 이화랑과 숙명공주이다. 하중의 부모는 세

종과 미실이다. 숙명과 세종 남매의 부모는 이사부와 지소태후이니 하중과 보리는 내외종간이다. 즉 그들은 지소태후의 피를 함께 나누고 있었기에 같은 배에서 출생한 것과 같이 많이 닮아있었다.

그들의 인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중의 어머니 미실은 어머니가 묘도(진흥왕의 왕후 사도의 언니)이며, 묘도가 옥진의 딸이니 대원신통이었다. 그리고 보리는 어머니가 숙명으로 지소태후의 딸이니 그는 진골신통이었다. 4세 풍월주를 역임한 이화랑은 피부가 '옥과 같이 부드럽고, 눈은 미소 짓는 꽃과 같고, 음률과 문장을 잘해서' 지소태후의 명을 받고 궁궐에 들어가 공주(황화, 숙명, 송화)들을 가르쳤다. 그런 와중에 이화랑과 숙명은 사통을 하였다. 그런데 지소태후는 진흥왕의 왕후 사도를 좋아하지 않았고, 자신의 딸 숙명을 왕후로 봉하여 진골정통의 인맥(脈)을 이으려고 하였다. 이부동복관계인 진흥왕과 숙명은 서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태후의 명을 따랐다.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 태자로 봉했는데 그가 정숙태자이다. 정숙태자는 일찍 죽었고, 이어서 사도왕후의 장남 동륜이 태자가 되었다. 또한 지소태후는 이화랑을 총애하여 딸 만호를 낳았다. 만호의 딸 만룡이 보리의 부인이 되어 김예원을 낳았다. 김예원이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의 조부이다. 한편 지소태후의 정인으로 궁에서 지내던 이화랑은 진흥왕의 사랑을 잃은 숙명과 눈이 맞아 야밤에 월담하여 궁궐을 빠져나와 멀리 가서 함

께 살았다. 지소는 정인 이화랑을 졸지에 딸에게 빼앗겼지만, 후일 그 딸을 용서하여 궁으로 불러들여 함께 살게 하였다. 이화랑과 숙명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원광과 보리이다. 원광은 대승불교의 진호국가사상(鎭護國家思想)을 화랑도(원광은 귀산과 추항에게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윤리강령을 가르쳐 당시 화랑도/또는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생활의 윤리를 제시하는 세속오계를 제정하여 주었다) 및 근왕사상(勤王思想(왕과 왕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다))과 연결시켜 국가의 이념으로 정립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화랑의 차남 보리는 예원의 아버지이며, 김대문의 증조부이다.

이화랑과 지소태후가 낳은 딸 만호, 만호는 동륜태자의 부인이 되기 전에 정숙태자와 사통하여 만룡을 낳았다. 만룡이 보리의 부인이 되어 20세 풍월주 김예원을 낳았다. 만호는 동륜태자와 함께 아들 셋을 낳았다. 장남 김백정이 579년 제26대 진평왕이 되었고, 차남이 김백반이며, 삼남이 김국반으로 제28대 진덕여왕의 아버지이다. 또한 만호는 동륜태자가 572년 죽은 후 속출종과 사통하여 만명을 낳았다. 만명이 김서현을 사랑하여 595년에 낳은 장남이 김유신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MAY 23<sup>RD</sup> - MAY 30<sup>TH</sup>, 2024**

**ITO EN**

JAPAN'S NO.1 GREEN TEA BRAND

**ITOEN**  
**Oi Ocha Green Tea**  
이토엔 오이 오차 녹차



**\$6.99** ← ~~REG. \$14.99~~  
500 mL X 6 BTLS/PKG

**HELLO HOME**  
SMILE, YOU'RE HOME!

**HELLO HOME**  
**PIGMENT PAD**  
헬로홈 한국산 최고급  
면 60수 피그먼트 패드



**\$23.99** ← ~~REG. \$49.99~~  
PINK/WHITE/BLUE  
QUEEN SIZE (150 CM X 200 CM)/EA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하이재킹' 하정우 "한 공간서 고군분투, 가장 힘들었던 캐릭터"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그동안 한 공간에서 고군분투하는 캐릭터를 많이 맡아왔는데, 이번이 가장 난도가 높은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어요."

영화 '하이재킹' 주연 배우 하정우는 22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 보고회에서 촬영 당시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 달 21일 개봉하는 이 작품은 1971년 대한민국 상공에서 여객기가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극한의 상황을 담은 스릴러다. 하정우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기장 태인 역을 맡았다.

그는 "굉장히 영화적이고 드라마가 강한 시나리오가 이 작품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출연 배경을 밝혔다.

하정우는 그동안 영화 '더 테러 라이브'(2013), '터널'(2016), 'PMC: 더 벙커'(2018) 등을 통해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에 맞선 인물을 꾸준히 연기했다.

그러나 그는 "'하이재킹'에서는 기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처하는 한편 납치범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분투하는 연기까지 해야 해 기존 작품보다 20배 가까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하이재킹'은 1971년 1월 실제 일어난 대

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 약 60명이 탑승한 여객기를 강원도 고성 출신의 20대 청년 김상태가 납치해 북으로 향하려 했던 사건이다.

김성한 감독은 "이 사건을 들었을 때 너무나 영화 같은 이야기여서 '영화로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김경찬) 작가님께 말씀드렸다"면서 "운 좋게 작품의 연출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아수라'(2016), '1987'(2017), '백두산'(2019) 등 굵직한 작품에서 조감독으로 활동한 김 감독은 '하이재킹'이 연출 데뷔작이다.

여객기를 위협에 빠뜨리는 테러범 용대는 여진구가 연기했다. 여진구가 악역에도 전하는 건 데뷔 후 처음이다.

예전부터 악역을 해보고 싶었다는 그는 "외적인 부분도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거친 모습으로 바꿨다"면서 "가끔은 연기를 하는 도중에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과격하게 행동하기도 했다"며 웃었다.

여진구와 처음 호흡한 하정우는 "실제로 만난 여진구의 모습과 제가 기억하던 여진구의 이미지가 굉장히 달랐다"며 "너무나 사내답고 멋진 배우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성동일은 베테랑 기장 구식 역을 소화해 영화 '국가대표'(2009) 이후 15년 만에 하정



우와 재회했다. 여진구와는 드라마 '사랑하고 싶다'(2006)에서 아버지와 아들 연기를 펼친 인연이 있다.

성동일은 "제가 나오면 관객들이 '안 웃

겨주나' 하는 기대가 있는데, '하이재킹'은 어떤 장난도 칠 수 없는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며 연기 변신을 예고했다.

rambo@yna.co.kr

5월 26일 - 6월 1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 운수: 기분전환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질 방법을 찾아보세요. ● 금전: 돈의 움직임이 많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아지니 지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애정: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8, 1일 길일, 27, 30일 주의.

**소띠 |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 운수: 금상첨화의 운세이니 좋은 일이 겹쳐서 들어올 것입니다. 서로의 뜻이 합쳐지면서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시 기입니다. ● 금전: 실속이 있는 때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들어오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 애정: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9, 1일 길일, 28, 31일 주의.

**범띠 |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 운수: 혼자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어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잘 살펴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7, 30일 길일, 29, 1일 주의.

**토끼띠 |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 운수: 에너지가 상승하니 건강은 회복되고 행복해집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 금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금전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애정: 알게 되는 것이 많을수록 이해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그리 깊게 알지 않았던 사람과 갑자기 가까워질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6, 31일 길일, 30, 1일 주의.

**용띠 |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 운수: 바람직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미루거나 망설이던 일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 금전: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로 지출이 늘어납니다. 나가는 돈은 있어도 기본 충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예상치 않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는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6, 1일 길일, 28, 31일 주의.

**뱀띠 | 대책을 세워 놓아야**

- 운수: 눈치껏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눈치가 없으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도 못하고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합니다. ● 금전: 꼭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한번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더 큰 틈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30, 31일 길일, 26, 1일 주의.

**말띠 | 치유되고 아물면서**

- 운수: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 금전: 매매나 거래를 하기에 유리할 때입니다. 부지런하게 다니는 만큼 들어오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 애정: 아직 마음의 주름이 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면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6, 31일 길일, 27, 28일 주의.

**양띠 | 행운이 따라줄 것이니**

- 운수: 모처럼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니 희망을 품어도 좋겠습니다. ● 금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때가 왔으니 계획한 대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행운이 따라줄 것이니 큰 이익도 생각합니다. ● 애정: 무너지기 어려울 것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7, 30일 길일, 28, 31일 주의.

**원숭이띠 | 깊이 생각해 보아야**

- 운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능력에 무리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할인판매를 하거나 단순히 싸다고 해서 사들이지 마세요.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애정: 막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하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8, 1일 길일, 26, 29일 주의.

**닭띠 |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 운수: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너무도 시원할 것입니다. ● 금전: 과거에 베푼 일로 크게 보답받는 일이 있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웃으면서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 애정: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모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9, 1일 길일, 27, 30일 주의.

**개띠 | 직접 확인하고**

- 운수: 남이 주는 정보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금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손해를 부릅니다. 새로운 투자나 원가 사들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애정: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당황하게 되거나 파국해지는 일이 있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30일 길일, 28, 31일 주의.

**돼지띠 | 신중하게 행동해야**

- 운수: 겪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고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한순간의 실수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애정: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31일 길일, 29, 1일 주의.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2/8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즈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9/1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7/1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정해인 "베테랑2, 연기 분석 않고 관객으로 처음 즐겨"

(칸-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제가 루미에르에서 언제 다시 영화를 보겠냐 하는 생각에 연기 분석하지 않고 관객으로 처음 즐겨봤어요."

류승완 감독이 연출한 '베테랑2'로 처음 칸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배우 정해인은 영화 상영 전까지만 해도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칸에서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21일 (현지시간) 인터뷰에선 그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다.

"저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오래된 배우가 아니어서 뭔가 좀 실감이 잘 안났어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최대한 덜 긴장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루 종일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베테랑2는 칸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공식 초청돼 21일 새벽 칸에서 해외 관객에게 먼저 선을 보였다.

정해인은 "보통 시상식 할 때는 제 연기 위주로 보며 분석하는데 이번엔 안 그랬다. 후회할 것 같았다"며 "처음으로 관객으로 즐겨볼까 하고 봤더니 시간이 빨리 갔다. 후회 없이 즐기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해인(박선우 역)은 극중 황정민(서도철 역)의 눈에 띄어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로 투입돼 연쇄 살인마를 쫓다가 점점 극의 중심인물로 자리 잡는다.

그는 "베테랑이 처음 나왔을 땐 저도 완전 햇병아리였고, 어리바리하고 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스템도 잘 모를 때였다. 이 영화는 마냥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런 작품에 제가 9년이 후 합류한 것"이라며 감사해했다.

1편이 1천만 관객을 넘기며 엄청난 성공을 거뒀기에 후속편에 주연으로 출연한다는 게 정해인으로서 부담이기도 했지만 2편이 1편과 결이 다소 달라 정해인에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그는 "1편과 비슷한 결이었다면 오히려 부담이 더 컸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것에 집중하자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해인의 '선한 이미지'와 액션을 잘 버무리는 건 과제였다.

그는 "감독님이 제게 '관객에게 계속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냈으면 좋겠다, 불길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하셨다"며 "그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극중 정해인은 격투기에 능한 형사로 등장한다.

정해인은 "액션 스킨에서 반년 정도 체력 훈련이나 관절기 기술을 많이 준비했다"며 "액션 연기 후 모니터링 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표정이 있었구나' 발견하는 순간이 많았다. 낯설었다"고 회상했다.

영화에서 정해인은 선과 악의 경계 지점에서 있었다.

정해인은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모호하고 주관적이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도도 다르고, 누군가를 '착하다'고 평가할 때 나에게 착한 건지 사회적으로 착한 건지 다 다르다"며 자신이 연기한 박선우를 해석했다.

선배인 배우 황정민을 옆에서 보며 배운 점도 많다고 했다.

그는 "자기 관리나 현장에서 작품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많이 느꼈다. 주인공이라고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감독과 스태프, 현장의 공기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칸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을 밟은 건 영화배우로서 엄청난 성공이지만 정해인은 칸 전과 후가 다를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칸은 칸이고, 돌아가서 남은 드라마 촬영을 열심히 해야 한다"며 "자꾸 위를 보려고 하면 조금해지고 불행해진다. 불행해지고 행복해지는 건 한끗 차이여서 지금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해인은 tvN의 새 로맨틱 코미디 '엄마친구아들'로 올여름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 4색으로 경복궁 수놓은 뉴진스...민희진-하이브 분쟁 후 첫 무대

(서울-연합뉴스) 최수성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공식 무대에 섰다.

뉴진스는 21일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린 공연 '2024 코리아 온 스테이지 - 뉴 제너레이션'(이하 '코리아 온 스테이지')에 출연해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발등 부상으로 스케줄을 중단한 혜인을 제외한 네 명의 멤버가 공연을 펼쳤다. 멤버 다니엘은 이날 공연 진행도 맡았다.

이날 뉴진스는 근정전에서 녹화한 '쿨 위드 유'(Cool With You) 공연 영상으로 무대를 열었다.

이어 서로 다른 색의 한복을 입고 등장해 '디토'(Ditto), 'ETA', '슈퍼 샤이'(Super Shy) 등 3곡을 들려줬다.

경복궁에 모인 관객들은 각자의 색으로 경복궁을 수놓은 뉴진스의 무대에 응원봉을 흔들며 호응했다.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되자 뉴진스의 순수한 매력과 조명을 받아 여러 색으로 반짝이는 고궁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팔을 흔드는 동작이 많은 '슈퍼 샤이'에서는 멤버들의 땅은 머리와 한복 자락이 화려하게 휘날리며 춤 선을 돋보이게 했다.

멤버들은 손뼉을 치고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등 경복궁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였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에 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해린은 "많은 곳에서 무대를 선보였지만, 국가유산 경복궁에서 저희 무대를 선보일 수 있어 뜻깊고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cjs@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시간에 대한 단상

"그림자가 생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물의 어떤 부분이 빛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그림자가 있다. 탁자 위 컵을 비쳤을 때 그 반대편에 생기는 그림자인데 일종의 그늘(shade)에 해당한다. 일사광선이 불투명한 물체를 통과하지 못하여 생기는 그림자를 영어로는 캐스트 새도(cast shadow)라 하는데 이는 다시 물체 자체에서 생기는 그림자로 물체의 표면 윤곽이 그대로 그림자가 되는 1차적 그림자, 피사체 그림자가 근접한 벽이나 바닥에 생기는 것을 2차적 그림자, 물체 그림자가 주변에 있는 다른 피사체 위에 형성되는 것을 3차적 그림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림자는 광선 방향에 대해 90° 각도로 놓여 있는 밝은 색의 장식 없는 벽에 드리워지는 것이 가장 강하며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배경이 어두울수록 그림자 효과가 감소된다. 그림자 윤곽에 따라 그것이 주는 효과도 다른데 일반적으로 윤곽이 뚜렷할수록 그림자가 어둡게 보인다. 그림자 크기는 항상 피사체보다 큰데 라이트와 피사체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림자는 커지고 그림자 길이는 라이트가 떨어지는 각도가 작을수록 길어지며 라이트와 배경을 이루는 기울기 각도가 클수록 길

어진다. 그림자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모호해서는 안 된다."

## 시간/신영

멈추었다  
멋은 심장의 그거리만큼  
공간 안과 밖의 시간

어디쯤에서 기억할까  
그 멈추었던 시간을  
언젠가 보았던 얼굴  
얼룩진 시간의 그림자

가고있다  
오래 전 떠나왔던 그 길  
그 길 따라 오늘도

너의 시간 속에  
내가 머문다  
내 가슴속에  
너의 시간이 흐른다

시간은 결국 순간의 결합체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찰나의 점들이 만들어 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을 의미한다. 시간의 길이는 모두가 다를 것이다. 각자 삶

에서 경험한 만큼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의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가슴에 서지울 수 없는 상처의 달이기도 하다. 세월이 흘렀다고 기억마저도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시간이 쌓여갈수록 더욱 더 깊어지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는 것이리라. 혼란스러웠던 80년대를 지나온 우리 체류탄 냄새를 아는 세대만큼은 적어도 잊지 않았으리라 그날의 그 아픔과 혼돈을.

'잊지 말자'라는 말보다 '기억하자'라는 쪽의 마음을 두고 싶다. 누군가에 의해 잊지 않으려 애쓰기보다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적어도 꽤나 짙은 비린내 서린 5월 만큼이라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역사는 언제 어느 시대나 그렇게 흘렀다. 그러나 적어도 동시대에서 겪은 내 조국의 서린 아픔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으며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저 입 밖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가슴 저 밑바닥의 슬픔의 요동침을 느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아무리 편안하고 평안한 오늘을 살더라도 말이다. 가슴 깊이 묻혀 있는 질푸른 그림자를 다독여 주면 좋겠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1950년 6·25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

극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1970년대 지식인 중심의 반독재민주화 운동에서 1980년대 민중운동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집권세력에 대항해 최초로 무력항쟁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1970년대 저항 운동의 수준과 한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혹은 광주 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 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 훌쩍 40년이 다 되어간다. 아직도 잠들지 못한 영혼들과 그 유가족들의 아픔에 애도의 마음을 드린다. 그렇다고 특별히 무엇인가 할 수 없는 나는 그저 5월의 슬픔과 쓸쓸함에 그들을 기억할 뿐이다. 처절하게 스러져간 그들의 주검들 속에서 오염하는 유가족들의 찢긴 가슴의 한 조각을 주워내 가슴 한켠에 묻어 놓는다. 그 슬픔이 다 마르는 날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고 다짐하면서 말이다. 시간 속 아픔들이 스멀거리며 올라온다. 가슴 아픈 영혼들의 울음이 가슴을 오염을 터뜨리며 울부짖는다. 기억하자 시간 속 그 5월을.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보스톤 미술관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위낙 시골에서만 살아서 그런가. 보스톤으로 이사와서는 놀란 게 많다. 유서깊은 도시풍광에 압도당한 거다. 또한 보스톤엔 자랑할 것도 많은데, 막강한 프로 스포츠팀들도 그러하다. 풋볼팀 패트리엇의 위용은 여전하고, 야구팀 레드삭스 또한 빠지지 않는다. 보스톤 미술관 역시 두드러 지는데, 세계 4대 미술관중에 하나라 했다.

미술이나 예술에 관한 전문가의 변방이다. '미술관/박물관은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시설

인 동시에 문화적 자긍심과 예술적 감흥을 일궈 내는 기능이 있다'. 분명 보스톤미술관 역시 보스톤인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장치임에 틀림없다.

보스톤 미술관 소장품중에 하나다. 폴 고갱의 작품인데, 책을 읽다가 이 작품을 사진으로 봤다. 명작임에 틀림없을 터. 제목 역시 길지만 인상깊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작품 제목을 보곤 김광섭 시인의 시와 그에 맞춘 김환기화백

의 작품이 떠올랐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시 전문이다.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그 별 하나를 쳐다 본다//밤이 깊을수록/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이렇게 정다운/너 하나나 하나는/어디서 무엇이 되어/다시 만나랴" (김광섭, 저녁에)

보스톤코리아 기사이다. 편집

인이 썼는데, 허락없이 그대로 옮긴다. 한류기획 특별전시회라는 거다. 3월 21일 자인데, "이번 전시회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전시이며 (한국의) 매혹적인 역사를 다양한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정이다. 또한, 한국 대중 문화의 기원, 진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다루는 미국 최초의 대규모 전시" 라고 소개했다.

미술관과 동물원. 한국영화인데 제목이 재미있다. 영화대사중에 한 대목이다. '명작은 처음부

터 풍덩 빠지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서서히 물드는 것' 미술작품을 포함한 모든 예술작품은 모두 그러할 게다. 아닌게 아니라, 나역시 그러하고, 어느틈엔가 작품이 새롭게 보이게 될적도 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 일생의 날들이 계속된다.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 후서 1:4)

# 민주평통 미주부의장배 보스턴 협의회 골프대회

**장소:** Cranston Country Club  
69 Burlingame Road, RI 02921

**시간:**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오후 1:00 (샷건)

**경기 방식:** 투맨 베스트볼 (스크램블)

**참가비:** 1인 \$120, 2인 \$200, 조편성을 위해 미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Green fee, riding cart, goody bag, buffet dinner 포함, 12시부터 당일접수 가능)

**시상내역 :**

1, 2, 3등 팀 트로피 및 부상

근접상: 8번 & 12번 홀

장타상: 9번 홀

다수의 특별상

One point lesson @ 12:00 PM by 김유림 티칭 프로

**Hole Sponsors Opportunity:**

Diamond Sponsor: \$1,000

Gold Sponsor: \$500

Silver Sponsor: \$300

Bronze Sponsor: \$200

Friend Sponsor: \$100



등록 및 문의: 홍진섭: 401.481.4900, jinsuphong33@gmail.com 한문수: 617.519.4500, moon.usa@gmail.com

협찬: 매사추세츠 한인회,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 서울 설령당,  
뉴잉글랜드 한미 시민협회, 강원도민회, 김동원 원장, 안태준 원장, 보스톤코리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 협의회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 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책 · 등산의 계절... 족부 질환 위험 주의해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에 발생이 늘고 있는 족부 질환에 대해서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 양지병원 정형외과 김 재영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가벼운 산책과 등산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겨우내 운동량 저하로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족부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봄철 흔하게 발생하는 족부 질환은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염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족저근막염 환자 수는 27만 1,850명으로 2월 2만 6,619명이었던 환자 수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3월 2만 9,468명, 4월에는 3만 3,849명으로 증가했다. 아킬레스건염 역시 총 환자 수 14만 3,366명 중 2월 1만 2,189명이었던 환자가 3월 1만 5,351명, 4월 1만 8,955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발은 52개의 뼈, 약 38개의 근육 및 힘줄, 107개의 인대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조직으로 족부 질환 원인도 다양하다. 장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으로 발생한 통증을 방지하면 만성화되거나 주변 조직까지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등산과 달리기를 무리하게 하거나 굽 높은 신발을 신고 장시간 걸으면 족부관절 질환(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 부위의 두꺼운 섬유띠로 충격을 흡수해 주고 발이 아치 형태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자극을 주면 염증이 생겨 족저근막염을 초래한다.

걸을 때 발뒤꿈치 통증이 느껴지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야 한다. 심하면 통증으로 걸거나 서는 것도 힘들며,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져도 재발 가능성이 높아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족저근막염은 초기 충분한 휴식과 물리/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통증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족저근막 부위에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할 수 있고 염증 부위에 고강도 충격파로 통증을 줄이고 손상 부위 빠른 회복을 돕는 체외충격파 치료(ESWT)를 시행하기도 한다.

봄철 무리한 운동은 또한 아킬레스건염을 유발할 수 있다. 아킬레스건염은 발꿈치 쪽 장딴지 근육 힘줄인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점진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며 상태가 나빠진 후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 운동량이 적

은 사람이 갑자기 장시간 운동을 하거나 걸을 때 아킬레스건에 가해지는 심한 체중 부하로 염증이 생겨 발생할 수도 있다. 주로 종아리와 뒤꿈치 부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 범위가 넓어지며 열감과 부종을 동반한다.

염증이 심하면 가벼운 운동과 움직임, 계단 오르기 등 일상 생활 불편을 주게 된다. 증상 초기 무리한 활동을 삼가고 아킬레스건 부위를 냉찜질하며 약물치료로 염증과 부기를 줄이게 된다. 걷는데 지장이 있다면 발뒤꿈치 보조기나 석고 고정 치료를 한다. 아킬레스건염은 방치하면 만성으로 진행하거나 조직 과염이 생길 수도 있다.

운동 중 발목을 빼끗하거나 접질려 생기는 발목 염좌도 흔히 볼 수 있다. 발목 염좌는 발목을 지탱하는 인대들이 외부 힘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통증과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한다. 주로 발목이 심하게 꼬이거나 접질렸을 때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 손상으로 발생한다.

발목 염좌는 방치하면 2차 발목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환자의 20%는 발목 인대가 느슨해져 자주 발목을 빼게 되는 발목 불안정성에 걸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인대에 자주 손상이 가해지면 연골이 닳아 뼈끼리 부딪혀 염

증을 유발하고 발목 관절염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족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과 잘못된 운동방법, 불편한 신발 착용 등 발병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충격 흡수용 쿠션 장착 운동화나 발목 보호대 착용을 권장한다. 운동 전 한 손으로 발꿈치를, 다른 한 손으로는 발끝을 잡고 발을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낮에 졸음 쏟아진다면...춘곤증 아닌 ‘수면무호흡증’ 때문일수도”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따뜻한 봄철에 늘어나는 족부질환**

족저근막염 · 아킬레스건염 환자 수 추이 (단위: 명)

월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2월	26,619	12,189
3월	29,468	15,351
4월	33,849	18,955

**아킬레스건염**  
종아리, 뒤꿈치 부근 찌르는 듯한 통증, 움직임이 뻣뻣해지고 인대 부종 동반

**발목 염좌**  
발목 안팎 늘어나는 통증, 발목 부종 유발

**족저근막염**  
걸을 때 발뒤꿈치 부딪히는 통증, 아침 일어나면 아킬레스건에 뻣뻣함

무상 무위 · 정도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이 크게 달라지는 족부질환, 통증 완화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 시행이 필요

지오리온 데이케어클리닉 양지병원

##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재휴법인

**호연회계법인**

호연회계법인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2024

# 강원도 특판전

Specials from the peaceful mountains of the Gangwon Province.

MAY 24<sup>TH</sup> - JUNE 6<sup>TH</sup>, 2024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푸른 산,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가진 청정지역 강원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제품들을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Experience the finest of Gangwon Province with our exclusive product showcase.



Sokcho Style Myungtae Cold Noodles  
속초식 명태회냉면/회비빔냉면

**\$7.99** COLD(2.78 LB)  
/BIBIM(1.72 LB)



DMZ PUNCHBOWL  
Dried Radish Greens  
DMZ 편치볼  
바로 시래기

**\$1.99** 7.05 OZ



BONGPYUNG  
Buckwheat  
Sikhye  
봉평메일  
냉식혜

**\$4.99** 1500 mL



Soup Stock  
(Beef Flavor)  
동치미  
냉면육수

**\$0.69** 11.64 OZ



Spicy Cold  
Chewy  
Noodles  
청우림  
비빔쫄면

**\$3.99** 15.16 OZ



Mugyo-Dong  
Yujeong Small Octopus  
무교동 유정낙지

**\$6.99** 10.58 OZ



100%  
Pure  
Perilla Oil  
서원당  
100% 들기름

**\$12.99** 170 mL



SEOLWON  
Dried & Sliced  
Pollack  
설원  
황태채

**\$10.99** 7.05 OZ



SEOLWON  
Dried  
Pollock  
설원  
황태포

**\$4.99** CUT/1.94 OZ



TIGAKTEGAK  
Fried Sweet Rice Crackers  
티각태각 후라이드 누룻지  
KIMCHI/INJEOLMI/CHURROS - 7.05 OZ

**\$3.99**



Delicious  
Memories  
Scorched Rice  
구수한  
추억의 누룻지

**\$3.99** 10.58 OZ



Delicious  
Memories  
Scorched  
Buckwheat  
Rice  
구수한  
추억의 메밀누룻지

**\$4.99** 10.58 O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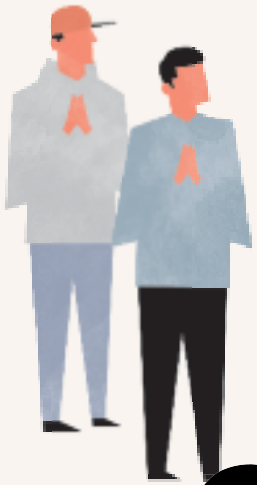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Participation limited to select stores. Please verify with your local store prior to visi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TBO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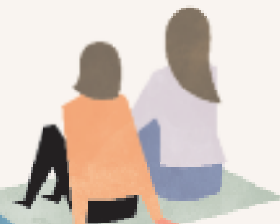
# 한국방송

# 어떻게 보세요?

지금보시는 한국방송 서비스 보다 저렴하게!

최근 1개월치 빌을 보내주시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전미주 합법 한국방송 서비스 Since 2009



티보 플레이로 보세요!



문의전화

855-826-4636  
855-TBO-INFO



# THANK YOU TO OUR SPONSORS

## UNDERWRITER & EXECUTIVE PRODUCER



재외동포청

## EXECUTIVE PRODUCER

• Insook Chang

## DIRECTOR

Kee & Susan Park • Frank & Mia Yeung • Sang Chul Shin  
• Shoe City Family Dentistry

## MOVIE STAR

Tae Nam • Linda Champion • Emeritus Song Kim • Jenn Suh  
• Hoon Heo • Boston OKTA Korean Business Association  
• Martignetti Companies • CAHF & CACA (Esther & Wilson Lee) • Korean American Society of MA • Friends of Ed Flynn • Linda White • Song K Kim

## STAR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 Boston-Korean Association of Kang Won Province •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 Young Ki Kim  
• Misun Han • Yen & Jung J Namkung

## CRITIC

Julie Jun •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 James & Jennifer Lee •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of the Republic of Korea • Moon S Kim • Kee Hwan Lee & Soon Jung Youn • Eunhee Oh



뉴잉글랜드 장애인 사역의 중심

 보스톤  
밀알선교단

# 보스톤 밀알 에 초대합니다

밀알선교단은 1979년 시작된 크리스찬 장애인 선교단체로 후원과 봉사를 통해 장애인분들과 가족분들 위한 예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 ❖ 사역 대상: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과 가족분들
- ❖ 사역자모집: 목회 사역자, 장애사역 전공자
- ❖ 봉사자모집: 차량 / 부엌 / 정리 및 청소 사역  
찬양 / 악기 및 음악 사역  
사진 / 홍보 / 체육 / 특활 / 수업 보조 / 인터넷 사역  
변호사 / 회계사 사역
- ❖ 후원자모집: 재정 / 기도 / 재능 / 행사 후원

후원 : 보스톤코리아

문의: 603.553.6955 밀알 보스톤지부